한국 무역신문
Korea Trade News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EC21
Global Marketing & Consulting
kr.ec21.com 02)6000-4435

해외마케팅의 No.1 성공파트너
ecplaza Global
kr.ecplaza.net / 02) 476-1144

www.weeklytrade.co.kr 2023년 3월 13일 〈제760호〉 Tel.02-6000-3119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 추가

수출우수기업 · 수출탑수상 · 수출제조기업에 관세조사유예 · 납부연장 · 담보생략 · 신속환급

관세청이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담보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원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세정지원 대상에는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여기서 우수수출기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수출 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특히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제조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제조기업으로 직 ·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 ·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 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책지원 부문에선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 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 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지난해처럼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 ·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세정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해당 여부, 신청 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

여기서 관세조사 유예는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0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간(2023.7.1~2024.6.30.)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또 납부기한 연장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원이다. 담보생략은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혁신기업, 탄소 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 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2022년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최신 무역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가득찬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베트남서 '오토메이션월드' 개최 코엑스가 베트남 빈증성 빈증무역센터와 협력하여 국내 스마트자동화 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4년 9월 '오토메이션월드 베트남'을 개최키로 하고 3월 9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기 코엑스 사장(사진 오른쪽)과 응웬 반흥 베타맥스 IDC 총괄회장(가운데), 베트남 빈증성 빈증무역센터 후인 딘 타이린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엑스 제공】

"IPEF 통해 비관세장벽 완화해야"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인도 ·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IPEF는 작년 말 1차 협상이 열린 이후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4개 분야별 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3월 13~19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2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IPEF 협상이 본격화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는 2차 협상에 대비해 업계 관계자 ·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보근 기자

올해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6곳 추가 개소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3곳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올해 추가로 6곳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9일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을 통해 대전지역 수출기업들과 제1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는 서울 KOTRA 본사, 구미 상공회의소,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전국 6곳을 추가로 개소해 2027년까지 총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방 기업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무역 전주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 인력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수산가공식품의 인도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웨비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KOTRA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을 활용한 유망 시장 · 바이어 추천 시연을 참관했다. 국내 발광다이오드(LED)기업과 화상 상담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현지의 유망 품목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수출신고필증 발급 간소화, 자율주행 로봇 운행 실증 실적 확보 등 수출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수출유관기관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언급됐으나 해소가 어려운 과제는 정부 · 유관기관 · 협단체 등이 참여한 민 · 관 합동 조직인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1조5000억 원의 수출지원 예산과 362조5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스마트팜 · 에듀테크 · 콘텐츠 등의 신수출동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한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며 "범정부 수출투자 플랫폼 '해드림'의 인공지능(AI) 추출시장보고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을 활용한 마케팅이 진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디지털 무역 지원도 이에 맞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근 기자

대일 수출규제 이슈 '돌파구'의 맹점은

한일갈등 계기로 이뤄진 '소부장' 지원 축소 우려
"일본 정부, 우익 눈치에 호응 어려울 것" 분석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된다. 정부가 징용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리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어진 발표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분쟁해결 절차의 중단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이며, 제소의 완전 철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조속한 시행에는 합의했으나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출절차 간소화가 적용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문제를 제소했다. 동시에 일본에 의존하는 수입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정책을 폈다.

소부장 뿌리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부 성과도 나타났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3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2019년 각각 85.5%, 93%, 32.2%에서 2022년 76.2%, 91%, 9.5%로 줄었다.

소부장 대일본 수입 비중은 2018년 18.8%에서 2022년 15.4%로 3.4%p 감소했다. 100대 소부장 핵심기술의 대일 의존도 역시 2019년 30.9%에서 2022년 21.9%로 10.7%p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p 감소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대한국 수출규제는 '자책골'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 단행한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공급망 왜곡을 일으키면서 역설적으로 일본에 새로운 경제 안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소부장 지원에 대한 열의가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안보 문제와 대일본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소위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한일관계 개선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인 피해자엔 배상한 전범기업, 한국엔 모르쇠 =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눈길은 일본에 향했다. 한국이 많은 양보를 한 만큼 일본 측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의 시선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일본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일본경제신문 〈닛케이〉 또한 관련 발표가 나온 6일 사설을 통해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하며 "정부는 한국의 해법을 뒷받침하고 이웃나라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본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우익세력은 한국에 추가 사과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우익매체 〈산케이〉가 발행하는 〈석간후지〉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한국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이 92.3%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5.5%)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반성과 사과가 담긴 1998년 한일공동선언뿐만 아니라 과거사 사과를 부정한 정권의 입장도 포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3월 8일 보도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사과 언급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은 역사 인식을 둘러싼 악순환을 피하기 위한 묘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지층인 일본 우익세력의 시선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의 호리이 이와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3월 7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참석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으며,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된 경위를 언급하며 "예전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해결책에 대해 원고와 한국 여론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조치 해제에 대해 예단을 갖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의 자세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으로부터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의사가 밝혀졌기 때문에 정책 대화를 재개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뿐이라며 징용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일본 경제지 〈토요게이자이〉에 따르면 아태지역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일본 우익 보수파의 압력에 늘 흔들리며 강제노동자 사과와 직접 보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정권은 전략적 차원에서 기시다 내각이 현재로선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듯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 해결책이 한국에서 파탄 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의 전범행위, 특히 강제노동에 대한 진지한 개인적 반성을 표명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측에서 충분한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허탕을 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에 소극적일 경우 우리나라가 일시 중지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고 주지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 측이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결정적 양보를 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피해자 직접 지급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는 지난 2016년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의 비슷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합의라는 명확한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회사는 전시 중 강제노동자로 사용된 3765여 명의 중국인에게 약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국의 징용 피해자에 대해 역사적 책임에 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그 1년 전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제노역에 사용된 전직 미국인 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전범기업의 태도가 달랐다. 〈닛케이〉의 3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니혼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에서 조성될 강제징용 배상금 재단 기부에 대해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눈길은 이제 3월 16~17일경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일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에 진전이 나타난다 해도 한일관계에 남은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키무라 칸 고베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는 〈닛케이〉 신문에 남긴 코멘트를 통해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로 징용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양국 관계는 안정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매체로부터 받고 있다"며 "답은 물론 NO"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징용공 당사자 모두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론조사에서도 이 조치는 낮은 지지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채 기자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광주 동구 5 · 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 · 관리 · 전송

‘무역마이(My)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제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도 신설

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수출기업이 각자의 수출실적 정보를 조회 · 관리 · 전송할 수 있는 ‘무역마이(My)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에서 자유무역협정 최적 관세율 추천 정보가 추가되고, 관세청의 무역데이터가 유관부처 등에 개방된다. 모바일로 해외직구 관세를 조회 ·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일 판교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세제도는 반도체 · 바이오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 비중이 높으나,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면서 “기존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여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의 안정적인 세계적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 · 활용을 대폭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 업계 · 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단장 : 관세청 차장)’를 통해 이 방안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역데이터의 개방 · 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무역데이터 활용 = 관세청은 무역정보 활용을 통한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4월 수출기업이 자사의 수출실적 정보를 조회 · 관리 · 전송할 수 있는 ‘무역마이(My)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역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면 수출기업들은 금융기관에 무역금융을 신청할 때 수출실적 증빙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수출기업이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관세청이 은행에 수출자료를 직접 전송하게 되므로 무역금융 신청이 빠르고 손쉬워질 전망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수출입기업이 무역 자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자사 정보를 자문업체 등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관세청은 또 통계청 · 중기부 등 유관부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출 촉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 기업수출입실적과 통계청 기업통계 등록부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지역별 산업단지 수출입동향 공표 등도 가능해진다. 또 기존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중인 3개 기업지원서비스(신흥시장 안내, 정부 지원사업 추천, HS코드 안내) 외에 ‘자유무역협정 최적세율 추천정보’ 등이 올 하반기부터 추가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유망 해외역직구 수출품목 · 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계가 공표된다. 현재 관세청 발표 월단위 수출입통계에 전자상거래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출지원기관 · 정부부처와 무역데이터 공유 = 관세청은 수출지원기관의 요구를 반영, 하반기부터 기관별로 신무역서비스 제공 지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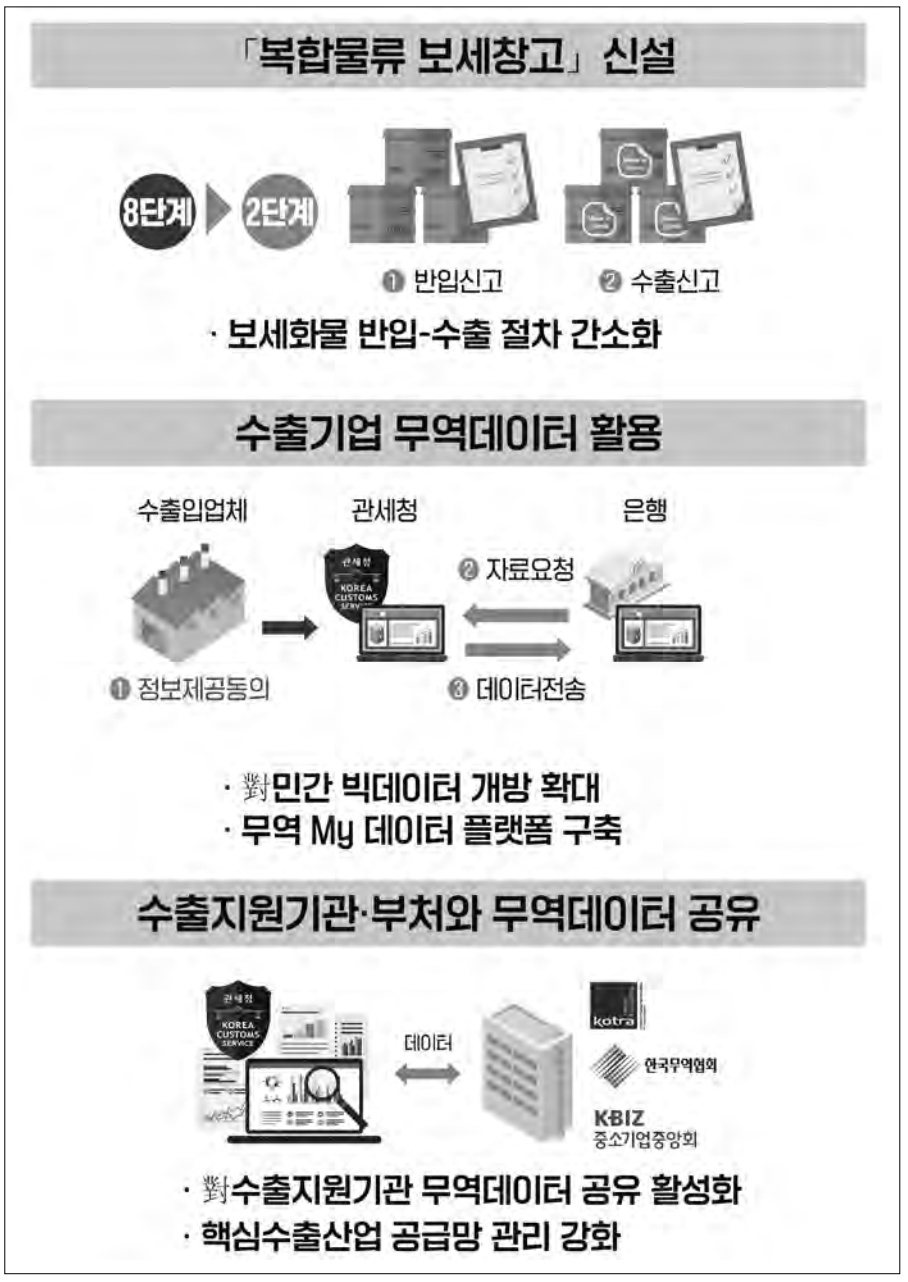
우선 KOTRA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저조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협정 · 품목 ·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활용현황 데이터 ▷유망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입 세부현황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조기탐지를 위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경보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은 실시간 수입데이터 상 나타나는 품목별 단가 · 수입량을 분석하여 공급망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KOTRA는 수출기업이 제공한 주요 품목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세부 수출입 거래 데이터가 없어서 해외 바이어 매칭 의뢰에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관세청이 제공한 상세 수출입 거래품명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해외바이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는 유망 수출품목 · 시장 발굴 지원을 위한 무역통계 분석에 필요한 품목분류번호(HS)별 신고품명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및 국제연합(UN) 등이 품목분류번호 기준으로 발표하는 무역통계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번호별 품명 데이터를 결합 · 분석하여 민간 수출업체에 유망 수출품목 ·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제공 중인 무역데이터를 현행 ‘수출’에서 ‘수입’데이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연동제관련 품목에 대한 상세 원부자재 수입가격 정보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핵심 수출산업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을 현재 수입품목에서 핵심 수출품목까지 확대, 관계부처에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 수출량 등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수출 조기경보시스템을 올 하반기 개발하고, 공급망 지도를 핵심 수출산업의 소부장 품목(151개)까지 확대(현재 200개→개선+151개)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외 재고 급증, 공급망 위험 확대,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 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4월부터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운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반도체 생산업체 A사를 예로 들었다. 인천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 물류센터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해외 구매자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물류센터에서 즉시 제품을 재포장하고, 라벨링하여 수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재고가 늘어나면서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국내 보세창고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보세창고의 경우 화물관리 단계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국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신축적이고 자유로운 보세화물 분할 · 재포장 · 반출을 위해 화물관리체계를 현재 B/L 단위에서 품목 · 수량 단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현재 8단계가 2단계로 축소된다.

●무역데이터 개방 · 공유 확대 = 관세청은 민간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별 수출입실적 등 57종 데이터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방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수요가 높은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개인통관고유번호 등 12종 이상을 이달 중 추가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품목별 수출입실적이 증권업계의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품검사로 축적된 엑스레이(X-ray) 영상 등 관세청의 정형 · 비정형 데이터도 대폭 개방한다. AI 학습용으로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AI 엑스레이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콜센터 상담 내용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 컨설팅 챗봇 개발을 지원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입국자의 99%(2019년 기준 내국인 4300만 명, 외국인 1600만 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에 해당한다. 7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 신속 입국을 통해 국민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이나 종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국민들이 해외직구 시 모바일로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해외직구 반품 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은 세관 직접 방문 또는 개인용 컴퓨터(PC) 환경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이 구축된다.

김석경 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읽기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중국이 왔다

내수 중심 경기부양 나설 듯
한국 자동차·반도체에 기회
미·일 편향외교를 지양해야

3월 7일 화요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 참석한 중국 지도자들(왼쪽 두 번째 줄부터) 리시, 차이치, 왕후닝, 리치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잔수, 자오러지, 한정, 딩쉐샹. 【베이징=뉴시스/AP】

'시진핑(习近平)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중국이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 정치권력 향배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고 계파를 구분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모두 시진핑과 그의 심복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상무위원 모두 시진핑의 사람들

지난해 10월 전인대에서 임명된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中央政治局常委) 상무위원은 시진핑을 비롯해 리창(李强, 총리), 자오러지(赵乐际,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王沪宁, 정협 주석), 차이치(蔡奇,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丁薛祥, 부총리), 리시(李希, 기율위 서기) 등 7명이다. 자오러지와 왕후닝은 시진핑의 책사 역할을 했고, 나머지 4명은 오랜 인연으로 심복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5년의 정치를 시작하는 게 명확해졌다.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의 2차 회의지만, 실질적으로 첫 업무 시작을 알리는 회의다. 지난해 10월 1차 회의에서는 5년을 이끌 새로운 인물을 선발하고, 5개월여의 인수기간을 둔 후 이번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 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간은 12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대표소조회의(代表小组会议)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방향, 올 경제계획, 예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경제 기조는 전임 리커창 총리의 보고와 사전 회의들을 통해 공개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인데, 금년 목표는 5%로 제시됐다. 지난해 5.5%를 제시했지만, 코로나 역풍으로 3%밖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물가상승률은 3%로 잡았고, 조사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5.5%를 목표로 한다. 신규 고용숫자도 중요한데, 지난해 실적과 비슷한 1200만 명으로 잡았다.

경기부양의 방향은 내수 확대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내수시장 흐름과 이에 영향을 받는 국제거래, 즉 자국의 수출일 것이다. 일단 중국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약 3조8800억 위안으로 잡고, 예산적자율을 3%로 2.8%인 전년에 비해 확대했다는 점은 약간 긍정적이다. 경기부양의 방향은 내수 확대다. 내구재와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가전, 가구, 요식업 위주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 기업이 거의 빠져나온 가전 분야는 큰 영향이 없지만, 현대나 기아가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에게 내수는 상당히 중요한

3월 5일 장쑤성 전인대대표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최고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이 모두 시진핑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요소다. 특히 현대차는 물론이고, 하청업체들은 시장이 부활하거나, 최소한 안정적으로 철수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현대차의 경우 중국 내 자동차 판매 점유율 1.68%까지 추락한 상태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특히 BYD나 상하이자동차 등의 전기차가 약진하는 상태에서 이 시장에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조차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정책적으로 올해 중국은 제조업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선별적 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때 주목받는 분야는 에너지, 식량, 광산자원, 반도체다. 여기에 인공지능, 양자기술, 녹색저탄소기술, 신형 인프라(5G, 산업인터넷, 데이터센터, 특고압 송전, 전기차 충전)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 반도체에 기회 될까

지금까지의 큰 흐름을 보면 중국 정보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큰 도움을 받았다. 문제는 한국이 우세한 국제 D램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가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60조 원이 투자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정이 미국의 압박으로 낮은 단계의 제품만 생산하는 상황으로 몰릴 경우 한국 반도체의 미래 전략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다. 현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인 외교정책으로 가고 있음을 중국 역시 모르고 있지 않다. 문제는 최악의 순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다. 중국은 여전히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더 많은 국가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차선출해' 잘 활용해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출구는 많은 곳에 있지 않다. 중국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중국은 멀리는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 생산기지를 만들려 한다. 가깝게는 한국에도 생산기지를 만들어 세계로 나가는 '차선출해(借船出海, 배를 빌려 대양으로 나간다)' 전략을 쓰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서해안권부터 남해안권까지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유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장기집권으로 인한 해외 이주 희망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비한 부동산 프로젝트 등은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천 송도나 청라, 영종지역과 제주도의 부동산 매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중국으로 수출하던 상품들이 초격차를 유지해 생명력을 연장하고, 새로운 수출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이미 대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익히 알려진 점이다. 품목별로는 올 2월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이 47.7% 감소해 1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난 상태다. 반도체 외에도 수출이 줄어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의 대부분 주요 품목의 수출 방향은 중국이었다.

한국의 국가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문제는 중국 밖에도 있다.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잘라 버리면서 관련국들이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국가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다. 과거에는 한국이 국제무역에서 작은 톱니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톱니로 컸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도 국제 전략을 짜면서 한국을 빼고 자기들의 방향으로만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조창완
스마트건강도시랩 기획이사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사업&콘텐츠 담당 부회장
문화산업상생포럼 수석부의장

중국 소비자, 한국 상품 호감도 크게 하락

'최근 5년 한국 상품 구매경험'도 3년 전 78.7%→올 43.1%로 추락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조사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동안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코로나 19를 계기로 달라진 중국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대중 수출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최근 중국 주요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 답한 중국 소비자는 54.5%로 지난 2020년 59.5%에 비해 5%p가 하락한 반면 '부정적'이란 답변은 10%로 3년 전의 3.4%에 비해 6.6%p가 높아져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내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을 보유한 소비자는 43.1%로 2020년 78.7% 대비 크게 줄었다. 식품, 미용제품, 의류 등에서 구매경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영유아제품, 위생용품, 주방용품 등은 구매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상품 후기(35.9%) ▷국가 이미지(34.6%) ▷경쟁력 부족(33.6%) ▷번거로운 A/S ▷불합리한 가격 등의 순으로 한중 관계는 물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품목을 화장품 및 식품 외에도 건강 · 의료 · 웰빙 제품,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제품으로 다변화하고 코로나19로 양극화된 중국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제품 브랜드 및 가격 이원화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진달 기자

중진공, '혁신바우처'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558억 규모다. 이번 1차 모집은 일반 바우처와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친환경 기술 · 업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가 새롭게 도입됐다.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세부지원 내용을 다각화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조기 진입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해 재무 분석 후 회생인가까지 연계 지원한다. 워크아웃컨설팅도 신설됐다.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 · 추천하면 중진공이 재무상태 실사, 자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컨설팅은 'ESG 경영혁신 바우처'로 확대 · 운영된다.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와 함께 2차 공고 시 모집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이후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보근 기자

아람코에 60억 달러 여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과 지야드 알마르셰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3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향후 3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기본여신약정이란 해외 우량 발주처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한도금액과 지원절차 등 지원조건을 사전에 확정한 후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 합작투자 등 개별지원 대상거래에 대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제공】

무역경제 범죄 대형화…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관세청, 지난해 8조2000억 원 적발… 가상자산 환치기 5.6조 원

마약 · 외환 · 관세 사범 등 무역경제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 범죄는 1983건, 8조2000억 원 규모로 이는 2021년의 2062건, 3조2000억 원에 비해 건수 기준 4% 줄었음에도 금액 기준 154% 늘어난 것이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 관할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법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적발 금액의 급증은 환치기 등 대형 범죄 사건을 적발한 데 따른 결과다.

가장 규모가 큰 범죄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외환거래는 총 15건, 5조6000억 원 규모였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출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작년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6조3000억 원(129건)이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7% 줄었지만, 금액은 369%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범죄는 771건으로, 600억 원 규모였다.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서 필로폰 10㎏을 받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케타민 6.3㎏ 밀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5639억 원(99건)으로 1년 전보다 141% 늘었다. 20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명품 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관세 범죄는 7879억 원(837건)으로 11% 감소했다. 반면 대외무역 범죄는 4670억 원(103건)으로 61% 증가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 7000여 정 밀수입(23억 원), 밀수입을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 통관고유번호 100여 개 도용(5억 원),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 부정 납품(53억 원),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입(170억 원) 등의 범죄가 있었다. 불법 의약품 밀수 등 보건 범죄는 214억 원(44건) 규모로 34% 감소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 4팀,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인천세관 조사5관 공항수사2팀,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등 5개 팀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마약 · 불법 식의약품 등과 같은 위해 물품에 대한 상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외환과 첨단기술 유출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보근 기자

"아세안, RCEP으로 한국 생산기지 가능… 공급망 강화"

'한 ·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아세안이 한국의 대규모 생산기지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망 강화와 고물가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인도네시아대학의 키키 베리코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주최로 열린 '한 ·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에서 'RCEP 협정을 활용한 한 · 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키키 교수에 따르면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2021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2006년과 비교해 2.6배로 커졌으며 한국의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6.3배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키키 교수는 "RCEP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 주요국을 생산기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며 "인도네시아에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배터리,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중국이 생산기지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 전 세계 물가상승을 흡수했던 것처럼 아세안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산업장관, 수출위기 타개 위해 주요국 상무관 긴급소집

'주요국 자국중심적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 주문

정부가 글로벌 수출 ·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중심적 통상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수출 · 수주 확대를 위한 20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은 주재국의 정부 · 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8일 상무관들을 만나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 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 달러(약 890조 원) 달성을 위해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수출 전장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수출 현장 애로 직접 해소를 위한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조치 등 우리 기업의 수출 ·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통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감지해 산업부 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달라"며 "작년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는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첨단전략기술, 미래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날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수출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업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 · 중 갈등 격화가 우리 수출 · 투자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연관 수출이 확대되고 미 정부의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한국 역할(프렌드쇼어링)이 집중 부각되는 것은 여러 기회요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친환경 · 공급망 · 인프라 등 최근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미 정부 관심 집중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가드레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 공급망 강화 노력이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시장은 그린딜 ·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배터리 등 핵심 산업 EU 역내 공급망 진출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은 입법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코 · 폴란드 등 원전 발주 유망국을 중심으로 공관 · 무역관 · 협회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 · 안정성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주재국 정부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중국 코로나 이후의 리오프닝(일상회복) 등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적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 · 친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고급소비재 · 실버상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수출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된 우리의 수출 · 투자 모멘텀을 실제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유망 수출분야 진출 전략을 제안한다. 범정부 · 민간 협업 체계 강화가 강조됐다.

베트남 · 태국 · 인도의 경우 소비재 · 콘텐츠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및 방산 · 플랜트 등 새로운 협력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핵심 광물 · 중간재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의 국가별 중장기 투자 · 수출 전략 필요성도 대두된다.

9일에는 통상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통상 현안 및 정책 방향 점검 회의'가 열렸고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 수출기업 1대1 애로 상담회 등 상무관과 국내 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10일에는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에 상무관들이 참석, 중동(사우디 · UAE) · 아세안(인니 · 베트남) · 인도 · 멕시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 7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권역별 신흥시장 맞춤형 수출 · 수주 방안, 현지 규제 정보,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등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김보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무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불매운동 약화로 일본맥주 · 유니클로 '부활'

1월 일본맥주 수입 200만 달러로 반도체 규제 이후 최대

일본 맥주와 유니클로가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따른 한국 내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만4000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314.9% 급증했다.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2019년 7월(434만2000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7월 400만 달러가 넘었으나 바로 다음달 22만3000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9월에는 6000달러까지 급감하며 바닥을 찍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 의류 · 자동차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사히 · 삿포로 · 기린 등의 일본 맥주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 등에서 사라졌고 한동안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불매 운동이 약해지며 지난해 3월 일본 맥주 수입액이 150만3000달러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100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또 지난해 5~12월에는 8개월 연속 100만 달러 선을 웃돌았고 올해 1월에는 200만 달러 선마저 돌파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마트에서 아사히 · 삿포로 등 일본 맥주를 4캔 9900원에 판매하는 판촉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을 연도별로 봐도 지난해 수입액은 1448만4000달러로 전년 대비 110.7% 늘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0만 달러에서 2019년 3975만6000달러로 급감한 데 이어 2020년 566만8000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687만5000달러로 소폭 늘었고 지난해 1400만 달러 선을 넘으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맥주 수입액 중 일본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였다. 이 비중은 일본의 수출 규제 전인 2018년에는 25.3%에 달했으나 2019년 14.2%에 이어 2020년 2.5%로 추락했다. 2021년에도 3.1%에 그쳤고 지난해 7.4%로 회복했으나 아직 수출규제 조치 이전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일본 의류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일본 맥주와 비슷한 양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본계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년도(2021년 9월~2022년 8월) 매출액은 7043억 원으로 전년보다 20.9% 늘었다. 영업이익은 1148억 원으로 116.8% 증가했다. 에프알엘코리아의 매출액은 2018년도 1조 3781억 원에서 2019년도 6298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5824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도에 7000억 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영채 기자

신보-하나은행, 중소 수출입기업 1개사당 15억 원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수출입기업 1개사당 최대 15억 원의 대출 보증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최근 하나은행과 함께 수출입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수출입 플러스(PLUS)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30만 달러(한화 약 3억9000만 원) 이상 수출입 실적을 보유하고 하나은행의 신용등급이 B2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 최대 15억 원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20억 원을 활용해 최초 2년간 연 0.5%p의 보증료를 차감 지원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금리 감면과 수수료 우대 외에도 보증부대출 금액의 30% 이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R&D 중심 화장품 기업… '코스메슈티컬' 변신 목표

회사 설립
1993년(2004년 이호규 대표 취임)

분야
화장품 제조업

회사 이름에 담긴 뜻
뷰니크 : 밸류+유니크 & 뷰티+유니크
세상에 하나뿐인 화장품으로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사업 목표
5년 내 수출 500만 달러 목표

충북기업 세계로 날다 | 10 뷰니크

한국무역신문 ·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 공동기획

뷰니크는 꾸준한 연구개발로 매년 10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회사의 대표 인기상품 가운데 하나인 핑거루트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을 시연중인 이호규 대표. 【사진=김준배 객원기자】

충북 음성에 위치한 뷰니크 사옥 생산설비 모습. 뷰니크는 꾸준한 연구개발로 매년 10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2004년 이후 출시한 제품 수가 200개가 넘는다. 【사진=뷰니크】

충북 음성에 소재한 화장품업체 뷰니크는 매년 10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비결은 꾸준한 연구개발(R&D)에 있다.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회사는 지역 대학들과도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청주대, 충북대, 극동대, 건국대 등이 협력 대학이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이호규 뷰니크 대표의 열정이 한몫했다. 연구팀과 수시로 대화하고 국내외 신제품 동향을 파악해 우수한 제품을 기획해 상품화 작업을 지휘한다. 이호규 대표는 "화장품과 피부과학 연구를 위해 뷰티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는 신소재 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핑거루트 추출물로 다수 화장품 개발

회사의 R&D 성과물 가운데 하나가 핑거루트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이다. 핑거루트는 생강과의 뿌리작물로 비타민C, 칼륨, 철 등이 풍부해 피부 수분 공급 및 컨디셔닝 밸런스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순수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이 주목받자, 회사가 2013년부터 야심 차게 연구해 내놓았다.

이 대표가 논문 등을 뒤지며 연구할 즈음에 마침 국내에서 핑거루트를 재배하는 곳이 있어 상품화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호규 대표는 "핑거루트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강화해주고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하고 충북대와 3년여 개발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로션을 시작으로 지금은 세안용 클렌징폼, 선크림, 마스크팩 등 핑거루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핑거루트가 효능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핑거루트 화장품회사가 여럿 등장했다"고 전했다.

2019년 청주에서 러시아 바이어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호규 뷰니크 대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등이 주최한 국가혁신클러스터 글로벌 콘퍼런스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다. 러시아 수출은 이때가 처음이다. 러시아는 추운 날씨로 인해 뷰니크의 보습크림이 호평받고 있다. 【사진=뷰니크】

2004년 이후 출시 화장품 200개 넘어

이 대표는 2세 경영인이다. 2004년 회사를 맡아 연구개발 중심 회사로 발전시키고 있다. 40여 건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2004년 이후 출시한 제품이 200개가 넘는다. 이 대표는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한 화장품 제조업체"라며 "이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화장품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고객들이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골랐지만, 지금은 브랜드보다 고객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는다. 미래에는 고객이 자신의 피부를 진단해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회사는 최근 4년 충북 우수바이오제품 인증을 대거 획득하며 주목받고 있다. 2019년 3건, 2020년 2건, 지난해 4건 그리고 올해도 3건의 인증을 받았다. 매년 꾸준히 2건 이상의 인증을 받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연구개발이 점점 시장에서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히 일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정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1만 원이 남든, 10만 원이 남든, 100만 원이 남든 협력사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록 지금은 빅바이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빅바이어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타진

회사는 오래 전부터 해외시장을 노크했다. 자체 연구개발로 탄생한 제품의 차별적 경쟁력이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홍콩 등 대표 화장품 전시회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의 코스메틱 전시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무역사절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2022년) 7월 무역협회에서 주관한 하노이 충북우수상품전의 경우 사전 매칭 작업을 진행한 덕분에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미리 테스트한 후 만나 효율적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뷰니크는 지난해 수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지만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호규 대표는 '핑거루트 식물'에 대한 대외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 수출이 빠르게 늘지는 않지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언젠가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뷰니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미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유통망을 가진 전문업체와 협상 중이다. 이 회사는 화장품 전문업체는 아니었지만, 뷰니크 제품의 성능에 만족감을 보이며 화장품 유통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호규 대표는 "핑거루트 식물 자체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있어 바이어들도 테스트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 캐나다. 베트남 시장에 제품이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인지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국내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해외에서 뽐내기 위한 계획도 소개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 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해 바이어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충북도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지원을 통해 미국, 캐나다, 베트남 수출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들 기관의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코스메슈티컬 기업 변신 목표

순수 원료를 활용해 의학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코스메틱과 메디컬의 합성어로 단순히 화장품 수준이 아니라 피부 치유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회사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순수 성분을 활용해 피부에 좋은 제품을 개발해 내놓겠다는 것이다.

뷰니크는 앞으로도 세상에 하나뿐인 화장품으로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회사명도 이를 목표로 잡았다. 뷰니크는 밸류(Value · 가치)와 유니크(Unique · 독특한)의 합성어이자 뷰티(Beauty · 아름다움)와 유니크의 합성어이다.

회사는 독창적인 화장품으로 해외시장에 이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호규 대표는 "우리만의 기술로 만든 화장품으로 세계 시장을 뚫겠다"며 "향후 5년 내 500만 달러 수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 기반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피부과학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배 객원기자

*〈충북기업 세계로 날다〉는 한국무역신문이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2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충북 소재 기업들을 방문 취재한 기획시리즈입니다.

인도 '발리우드(Bollywood)'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장에서 본 'G2' 인도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 (31)

●인도 국민통합의 3축 : 영어, 크리켓 그리고 발리우드 영화 = 지폐에 새겨 넣는 15개 언어, 만 개가 넘는 카스트, 다양한 종교 등 거의 모든 것이 얽히고설킨 인도아대륙의 복잡함과 다양성은 유사 이래 자주통일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이 대륙 역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1947년 인도 독립 이후 70여 년이 넘는 세월은 국부 간디가 열망했던 근대국가 인도가 그 실체를 조금씩 갖추어 가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서 근대국가 인도에는 인도, 인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져다줄 매개체 또는 촉매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어, 크리켓 그리고 발리우드로 대표되는 인도 영화다.

인도의 영어 사용 인구 비중은 2010년 조사 기준 전인구의 10%(교과 반영으로 20% 가까이 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많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에서 영어는 지배계층의 언어이자 출세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북서부 카슈미르부터 동양계 민족의 북동부 7개 주, 그리고 남부 드라비다계의 타밀나두 모두 언어는 다르나 지배층이나 여론 선도층의 주 언어, 일상 언어는 영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인구 대국인 인도의 성적이 시원찮은 가장 큰 이유는 온 국민이 크리켓 열풍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농담조의 지적이 있다. 조그만 공터나 공간이 주어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심지어 히말라야 산간에서조차 크리켓이 일상이다. 인도-파키스탄 간 크리켓 경기의 열기는 월드컵의 한-일전보다 몇 배 뜨거운 것 같다. 주로 영연방 국가들의 제전인 크리켓 월드컵에서 4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기 도중 화장실도 못 가는 인도인들을 수없이 보았다.

●연간 2000편 제작 미국의 3배, 20억 관객, 인도인 1인당 연평균 1.5회 관람 = 우리에게 '발리우드(Bollywood)'로 알려진 인도 영화도 이런 통합 역할을 한다. 발리우드는 인도 북서부 해안 도시로 인도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뭄바이의 옛 지명인 봄베이(Bombay)와 미국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다. 정확하게는 이 봄베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인도 영화이지만, 인도 영화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도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해 인도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연간 1500에서 2000편에 달해 물량 기준 세계 최고다. 전국에 있는 1만2000여 개 영화관에서 데뷔할 수 있는 영화는 이 중 수백 편에 불과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연간 20억 관람객으로 1인당 연간 1.5편, 관람료 수입은 17억 달러 전후다. 연간 700여 편을 제작해 12억 관람객을 유치, 110억 달러 관람료 수입을 올리는 미국 대비 제작 편수는 약 3배에 달하지만 1인당 1500원에 불과한 평균 관람료로 금액 기준 전 세계 3위 영화 시장이다. 연간 200여 편 영화에 1인당 5.3회 극장을 방문, 12억 달러를 지출하는 영화 대국 대한민국보다는 뒤처지는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00달러대로 미국의 30분의 1, 우리나라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인도 인구의 약 5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여건을 고려할 때 평균 120루피(약 2000원)에 달하는 입장료는 인도 일반 대중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그만큼 인도에서는 대중의 인도 영화 사랑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 영화는 크게 춤과 노래가 같이 들어가는 '마살라 무비(Masala Movie : Masala는 복합 향신료)' 장르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인도 마살라 영화에서는 영화 내내 주인공(커플)의 춤과 노래, 그리고 군무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인도 영화에서 음악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 요소다. 영화 상영 전 삽입곡이 시중에 먼저 배포되고, 이것이 인기를 끌면 영화흥행은 100% 성공이다. 입만 뻥긋하는 주인공의 수많은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를 통상 '플레이백 싱어(Playback Singer)'라 불리는데 주연배우 못지않게 인기가 있고, 유명 영화작곡가 이름도 대중에 친숙하다. 따라서 인도에서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에 더해 반드시 춤 실력이 갖춰져야 하고, 가창력이 가미되면 금상첨화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유치한 영화는 가상의 힌두 왕국 왕자, 바후발리(Baahu Bali)의 모험담을 담은 "바후발리 2, 더 컨클루전(속편)"으로 2017년 1억2000만 관객에 2억8000만 달러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세계 3위의 인도 영화산업 규모에 걸맞게 특급 배우에게는 세계 정상급 출연료가 지불된다. 일례로 세 명의 칸(Three Khan)이라 불리는 "샤루크 칸(Shah Ruk Khan)", "살만 칸(Salman Khan)", "아미르 칸(Aamir Khan)"의 영화 1편당 출연료는 통상 우리 돈 150억 원 이상이고 흥행 순수익의 약 60~70%를 이들 주연배우가 가져간다. 해서 30년 이상의 발리우드 경력을 자랑하는 샤루크 칸의 개인 자산은 8억 달러에 가까워 미국의 톰 크루즈, 조지 클루니를 넘어 세계 4위로 알려져 있다.

●'탈리우드(Tollywood)', K-무비 열풍 : 변화하는 인도 영화산업계 = 인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영화의 변함없는 주제는 신데렐라적 사랑과 액션이다. 영웅에, 주연배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신데렐라적 사랑의 여주인공에 자신을 대입한다. 짧은 2~3시간 동안만큼은 고달픈 현실도, 질곡의 카스트도 남의 이야기다.

복잡하고 정치한 각본은 그리 중요치 않다. 앞뒤 전개도 맞지 않으나 카슈미르 계곡, 판공호(Pangong Lake), 라다크(Ladak) 등 인도가 자랑하는 세계적 절경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춤과 노래에 대리 만족을 느끼고 대리 관광을 한다. 영화에서 대사보다 춤과 노래 비중이 훨씬 크다. 이것이 전통적인 인도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인도 영화는 인도 국민통합의 상징이자 용광로 역할을 해 왔고, 음으로 양으로 이에 대한 인도 정부와 보수 '국뽕' 언론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발리우드 영화도 소득의 증가, 개방화의 진전, 언어와 종족을 달리하는 남부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아바타' 등 정교하고 화려한 인도 밖 영화의 영향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힌디어 영화를 대변하는 발리우드 영화는 이제 인도 영화제작 편수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남부 지방 언어 텔루구(Tellugu)어(안드라프라데시 주민의 주 언어), 타밀(Tamil)어를 기반으로 한 현지 영화 비중이 각각 13%로 급속한 증가 추세다. 이미 인도 제1, 제2위 영화 제작사가 텔루구어를 사용하는 남부 텔랑가나(Tellangana)주나 주도인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 위치해 있고 남부 영화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뭄바이의 발리우드에 빗대어, 하이데라바드 영화산업계를 일컫는 '탈리우드(Tollywood)'란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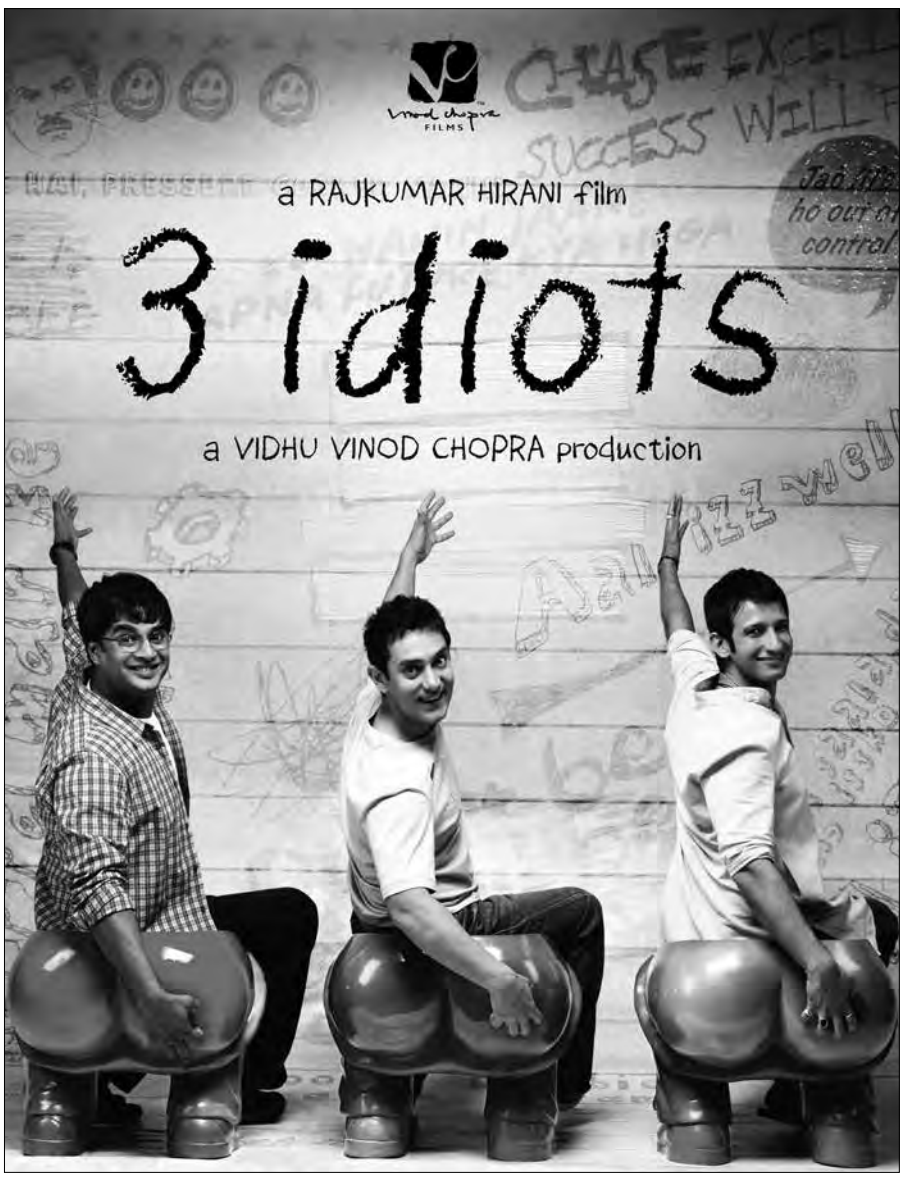
춤과 노래, 힌디어 일변도의 특성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앞뒤 전후의 시나리오와 각본을 중시하는 영화의 인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개봉된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에 기반해 2021년 개봉된 힌디 영화 '라데(Radhe, 힌디어로 성공을 뜻함)'를 비롯해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 등 지난 20년간 20여 편의 한국 영화가 인도 현지에서 리메이크된 바 있다.

코로나 기간 중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2022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Squid Game)'의 폭발적 인기로 인도 영화계도 각본과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해 가고 있다. 그 정점에 한국영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도 현지 인식을 반증하는 사례다.

지난 몇 년 인도 북서부 카슈미르주의 중국 접경지역인 라다크(Ladak)에 인도 및 한국 관광객이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1년 인도 명문 IIT 델리대학교 공대생의 일탈과 성공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세 얼간이(3 Idiots)'가 인도를 넘어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바 있다. 이 영화의 끝부분 배경으로 등장하는 해발 4000m의 아름다운 판공호 비경이 알려지면서 인도 히말라야가 네팔 히말라야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인도인들과 우리 영화팬들에 널리 알려진 결과다.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과 인도 간 문화 협력과 상호 이해도 이제 차원을 달리해 가고 있다.

김문영은 1998~2002년, 2018~2021년 인도에서만 8년 동안 근무한 인도 전문가다.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 SolBridge 국제경영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3,000년 카르마가 낳은 인도상인 이야기(2021)'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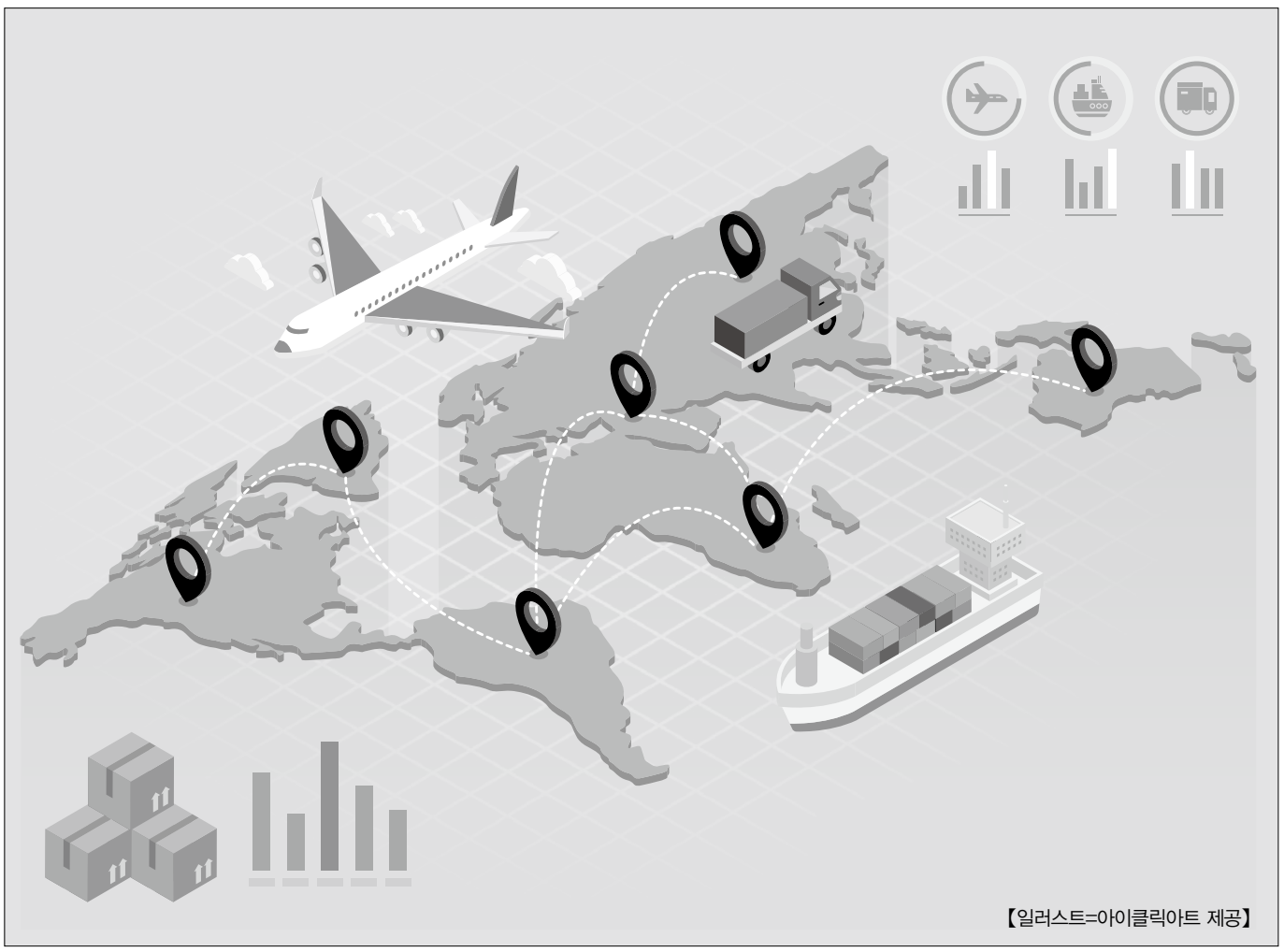
영화 '3 Idiots' 포스터. 자료 : IMDb

왕초보 무역

EXPORT/IMPORT

〈한국무역신문〉은 2017년 초보 무역인들을 위한 시리즈 기획 '왕초보 무역교실'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독자들의 요청으로 이를 업데이트 하고 재편집해 싣습니다. 〈편집자〉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해외공장과의 임가공 거래를 통한 위탁가공무역과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수반되는 중계무역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위탁가공무역은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를 해당 공장으로 보내거나 해외 현지에서 조달하여 제공하고,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현지 판매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여기에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수출한다는 의미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유·무상으로 해외공장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원료 일부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되지만, 물품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는 외국인수수입으로 규정해 원자재의 해외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공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한데 이를 외국인도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해 국내를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을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목적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다. 중계무역의 경우 대부분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나 무역관련 서류들은 중계국인 우리나라를 중간에 거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중계무역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시키고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형태다. 물론 물품이 국내로 이동되더라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송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탁가공무역에서 현지 판매나 제3국 수출을 하는 경우 업체에서는 중계무역과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다음은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

– 위탁가공무역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위탁가공무역의 거래절차는 해외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공품의 원료 등을 공급한 다음 해외에서 제조 가공과정이 끝나면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현지 판매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고 가공임을 지급하는 순이다. 가공계약은 통상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로 표기하며 주요 계약 내용에는 원자재 대금의 결제방법(유상, 무상 여부), 원자재의 수량 및 관리방법, 제조공정 관리방법,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T/T 또는 L/C), 분쟁 발생 시 처리방법 등이 있다. 위탁가공계약서의 예시문은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의 무역정보→무역서식/계약사례→국제무역계약사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동 예시문을 토대로 해당 업체의 계약 내용에 맞게 고쳐서 작성하면 된다.

– 위탁가공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에 수출해야 할 때 수출실적은 어떻게 되나?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한 후 현지 판매 또는 제3국에 수출해야 할 경우, 위탁가공물품 판매금액이 국내로 입금되면 해당 입금액에서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보낸 원자재비와 해외공장에 지급한 가공임을 제외한 순수 외화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위탁가공무역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동 원자재를 해외공장으로 보낼 때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한 FOB 금액만큼 이미 수출실적이 계상된다. 그래서 판매액에서 원자재비를 차감하여 이중으로 실적이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출실적의 증명발급은 판매대금이 입금된 외국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 중계무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계무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제3국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형태이므로 국내에서의 수출입 제한요건의 충족이 필요 없는 거래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거래가 제한되는 상품일지라도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제한요건이 없으면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수입국에서의 수입제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며, 특히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적인 통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중계무역에서의 물품 인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통상 중계무역에서는 물품이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상업송장을 제외한 B/L 등 선적서류를 제3자 서류로 한다. 즉, B/L 상의 수출자(Shipper)는 최초 수출자가 되며, 화물의 도착통지처인 것이다. 착하통지처는 중계자(또는 최종수입자)가 될 것이며, 수하인은 최종수입자이거나 신용장 거래일 때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시식으로 된다.

그러나 최초 수출자와 최종수입자를 서로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수출자를 수출자로 수하인을 중계자로 발행한 B/L을 중계자가 받아 이를 발행한 선사에 제시하고 수출자를 중계자, 수하인을 최종수입자로 바꾸어서 발행하는 B/L 스위치를 하게 된다. 이를 스위치 B/L이라고 하며 중계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B/L이다. 또한, 중계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인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 최초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을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 중계무역에서의 수출실적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무역에서의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액(FOB 가격 기준)에서 수입대금 지급액(CIF 가격 기준)을 뺀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수출입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물품의 인도 방법, 즉 물품의 중계국 경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중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므로 중계무역은 중계자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각각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중개무역은 최종수입자나 최초 수출자의 대리인으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2건의 거래며,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만 있는 거래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무역신문 편집팀

*위 글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상담내역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하모니렌트카 장기렌트

하모니렌트카 단기렌트

렌트의 가치를 더하다

하모니 렌트카

[HARMONY RENTCAR]

장기렌트 문의
1661 - 9763
단기렌트 문의
1599 - 1521

실시간 견적으로 바로 확인하는 렌트비용!
자동차세, 취등록세, 보험료의 추가부담은 없이!
인기차종 즉시출고!
만 26세 이상, 소득확인 3개월, 운전경력 1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www.harmonyrentcar.com

하모니렌트카 HARMONY RENTCAR

호떡 · 떡볶이 등 길거리음식 일본인들에 인기

도쿄 '푸덱스 재팬(Foodex Japan)' 현장… 한국 참가기업 수출실적 1억 달러 기대

"(일본) 슈퍼마켓에서도 냉동 포장된 호떡을 사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시나몬 맛이 나서 아주 좋아요."

3월 7일 일본 도쿄 전시컨벤션센터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한 식품 박람회 '푸덱스 재팬 2023(Foodex Japan)' 한국관에 마련된 무료 시식 코너에서 호떡을 맛본 유통업체 이나타바 직원 오자키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일본에서 큰 인기인 한국 길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해 운영한 'K-스트리트 푸드 존'에는 시식을 기다리는 일본 유통 바이어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떡볶이와 핫도그, 김치전, 붕어빵, 호떡 등 대표 길거리 음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나 전기오븐에 데워서 내놓기 무섭게 사라졌다.

조리를 담당한 최우섭 씨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었는데 다양한 성별과 연령의 식품 바이어들이 방문해 맛을 봤다"면서 "맛있다면서 가격이나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수량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유명 레시피 검색 사이트 쿡패드가 올해 식품 트렌드로 '포차(포장마차)'를 선정하는 등 한류 인기로 일본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에 대한 관심도 크다. 시식 코너 옆 식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전시된 막걸리와 떡볶이, 부침개를 배경으로는 방문객들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길거리 음식 코너 옆에 마련된 약밥 시식 코너에도 일본인 바이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식품회사 웰팜푸드 직원인 사와다 시게루 씨는 약밥을 맛본 뒤 "처음으로 약밥을 먹어 본다"면서 "약간 달긴 했지만 일본 음식과 비슷하다. 맛있다"고 평했다.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푸덱스 재팬에는 농협과 삼양식품, 국순당 등 한국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70곳이 110개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을 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3년 만에 한국 수출업체가 직접 참가했다.

한국에 일본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대일본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1억 69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행사장을 방문한 김춘진 aT 사장은 "선진국인 일본에서 우리 농수산물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세계에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1억 달러(1300억 원)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테크를 접목한 토마토와 키위 등 한국 신선 농산물의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AEON)을 비롯해 세계적인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일본 대형 유통회사 세븐앤아이(7&i)홀딩스 등 일본 대형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찾아 상담했다.

3월 7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한 식품 박람회인 '푸덱스 재팬'에서 일본인 바이어와 참관객들이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관에는 미래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트볼, 제육볶음, 육포 등의 식물성 대체육이 소개됐으며 파프리카 등 기능성식품 홍보관도 운영됐다.

aT 관계자는 "한류 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3~4년 전부터 한국 음식은 품목과 관계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일본은 성숙한 시장이라 성장성은 다른 외국과 비교해 크지 않지만,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리테일 혁신이 모두 모였다" 유로샵 2023 성황

3년 만에 열린 독일 뒤셀도르프 유로샵(EuroShop 2023)이 55개국 1830개사가 참가하고 141개국 8만1000명이 다녀가는 성공을 거두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이 세계 최고의 리테일 산업 전시회는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전시회가 아니라 유통 및 점포설비 분야의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다루는 전 세계 유일의 전시회로서 업계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 제품을 선보였다.

유로샵(EuroShop 2023)이 55개국 1830개사가 참가하고 141개국 8만1000명이 다녀가는 성공을 거두었다. 【사진=라인메쎄 제공】

유로샵의 성공은 높은 국제성 및 리테일 종합전시회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유로샵은 독일에서 개최되지만 방문객 해외 비중이 68%로 높은 국제성을 자랑한다.

올해 전시회는 리테일 산업을 8개의 주요 분야로 나눠 방문객의 효율적 관람을 지원했다. 전시 분야는 ▷리테일 마케팅 ▷엑스포 및 이벤트 마케팅 ▷샵피팅, 스토어 디자인 ▷비주얼 머천다이징 ▷조명 ▷냉장 및 에너지 관리 ▷소재 ▷푸드 서비스 장비였다.

각 분야의 리딩기업이 유로샵 2023을 신기술, 신제품 프리미어의 장으로 적극 활용했다. 참가사들은 리테일 산업의 혁신 트렌드로 손꼽히는 옴니채널, 지속가능성,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미래지향적 솔루션을 대거 출품했다.

특히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성은 8개 전시 분야에서 공통 주제였다. 참가사들은 혁신적 생분해성 매장 관련 제품, 해양폐기물에서 얻은 원료를 사용한 마네킹 등 기후 보호에 앞장서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냉동/냉장 및 조명 부분에서도 효율적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 대거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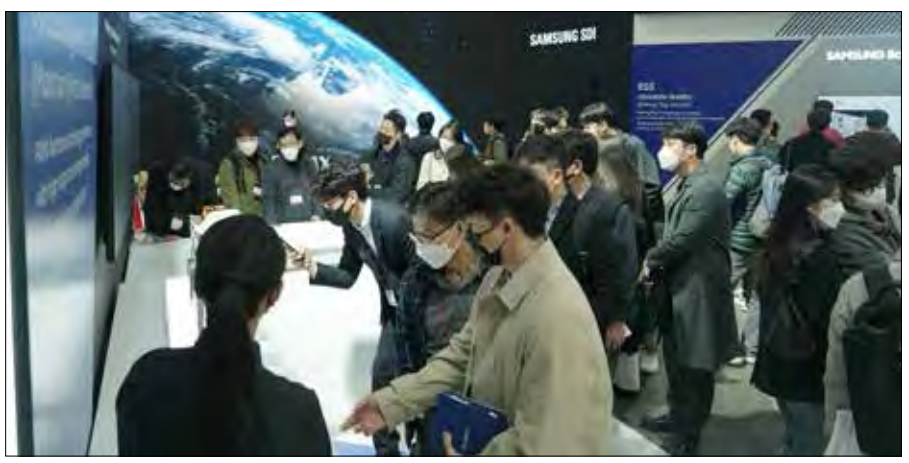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포스뱅크, 블루버드, 필룩스, 라인어스 등을 포함해 23개사가 참가했다. IT선진국인 한국에서는 리테일 테크놀러지 분야에 다수가 참가했고, 생분해 친환경 매장제품 분야, 조명 분야 참가사들도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참가사는 모두 우수한 제품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바이어와 활발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김영채 기자

'인터배터리 2023'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린다

글로벌 1위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3'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번 전시회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50여 국내외 기업들이 1400부스 규모로 대거 참가해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와 바이어 등 4만여 명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KOTRA가 주관하는 인터배터리는 전세계 배터리 전문 전시회 중 유일하게 글로벌 탑 규모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모두 참가하며, 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3.2%에 달한다. 이외에도 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양극재), 포스코케미칼(음극재), SK넥실리스(동박), 고려아연(제련), LS그룹/ABB/로크웰오토메이션(공정자동화 등)등 배터리 제조 공정 전 분야별 글로벌 대표 기업들을 포해 배터리 산업분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출품했다.

인터배터리 2023 기간 중 동시 개최되는 행사는 배터리 활용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관련 전시회인 'EV 트렌드 코리아(100개사 500개 부스 규모)'와 참가기업에 해외 진출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다. 15, 16일 양일간 코엑스 B홀 전시장 내 마련돼 있는 상담회장에서는 전시회 참여기업과 KOTRA 초청 해외바이어 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김영채 기자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3'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전시회장. 【사진=엑스코 제공】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차세대 주요 광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7월 26일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 중 하나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리튬과 다른 미네랄 수준을 측정

자원민족주의 물결, 중남미를 휩쓸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산업 급성장에 '귀한 몸' 된 리튬
멕시코 "국유화… 볼리비아 · 아르헨 · 칠레와 연합"
'부의 재분배' 추진하는 제2 핑크 타이드 재원 되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차세대 주요 광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의 가장 중요한 생산지인 중남미에서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2차전지 산업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2차전지는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며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더불어 국가적 최중요 첨단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리튬의 위상은 '하얀 석유'로 불릴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석유처럼 리튬 자원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일도 생겼다.

최근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리튬 자원의 국유화 법안을 발표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리튬 자원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국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멕시코의 리튬 매장량은 이웃 중남미 국가에 비해 많지 않지만, 부족한 매장량을 지역 연대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와 관련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앞으로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리튬 자원이 외국 자본의 손에 좌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리튬 자원 국유화 선언 직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리튬 자원 전력화를 위한 중남미 연합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남미 안데스산맥 중부의 '아타카마 고원'은 세계 리튬 매장량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가 연합하기로 한 3개국은 이곳에 영토가 걸친 최중요 생산국이며 '리튬 트라이앵글'로 일컬어진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튬 트라이앵글 3개국에 비해 리튬 매장량이 적은 멕시코는 리튬 채굴과 정제 설비 투자도 제안했다. 특히, 많은 매장량에도 기술력 부족으로 리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볼리비아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멕시코가 리튬 자원에 대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같은 국제 연합체를 결성하고, 중남미 리튬 자원국의 발언권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역시 리튬 생산을 위한 국영기업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멕시코의 리튬 연합 구상과 관련해 마르셀라 에르난도 칠레 광업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칠레는 이미 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하는 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드는 계획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사용도 보편화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리튬 수요 증가와 리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세계 최대 리튬 매장 지역인 중남미 주요국은 앞으로 리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중남미 내 좌익 정권 영향력 확대에도 '눈길' =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들에서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데에는 새로 나타나고 있는 '핑크 타이드' 현상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핑크 타이드란 중남미에서 온건 사회주의 정권이 다수 집권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들 정부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정으로 부의 재분배 정책을 펴며 높은 지지율을 달성했다. 핑크 타이드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튬 트라이앵글 국가에서 핑크 타이드가 완성된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중남미 핑크 타이드는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을 약화하기 위해 같은 좌익 계열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성을 띤다.

하기 위해 호수를 파 놓은 모습. 【사진=AP/뉴시스】

일례로 최근 볼리비아 리튬공사는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 등 중국 업체와 손을 잡고 리튬 채굴을 시작했다. 볼리비아는 외자기업에 대해 지분 규제가 엄격하지만, 중국은 조건을 맞춘 데다가 인프라 건설과 기술 이전까지 약속하며 사업을 따냈다.

세계 최대의 2차전지 생산국이자 제3위 리튬 생산국인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리튬 생산과 가공 공정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 업체가 생산한 리튬이나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빠르게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업체 포드가 중국 최대 배터리업체인 CATL과 라이선스 협업으로 법망을 우회하는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도 리튬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리튬 소금호수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씨티은행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2024년까지 수산화리튬 2만5000t, 탄산리튬 2만5000t으로 총 5만t 규모의 리튬을 생산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63만 대 생산이 가능한 분량으로 추산된다. 김영채 기자

'고물가 · 양극화' 사회문제, 제2의 핑크 타이드 이끌다

우파 정부서 악화된 불평등,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정권 교체

최근 중남미 국가들에서 재확산되는 온건 좌익 정권들의 수립은 '제2의 핑크 타이드'로 불리며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5년간 중남미에서 치러진 대선을 통해 18개국 중 13개국에서 좌익 계열 정권이 집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멕시코에서 사상 최초로 좌익 계열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그 시작으로 본다.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구 핑크 타이드 정권의 계승자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2019년 12월 집권했다.

글로벌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볼리비아에서 마찬가지로 핑크 타이드의 계승자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이 비교적 높은 득표율로 취임했다. 페루에서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이 2021년 7월 취임했으나 2022년 12월 탄핵됐다.

칠레에서는 2022년 3월 중도좌파성향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룰라 다시우바(Lula da Silva)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

그밖에도 파나마의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2019년), 도미니카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2020년),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2022년),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2022년),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2022년) 등이 지난 5년간 취임한 중남미 좌익 정권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구 핑크 타이드 이후 집권한 우파 정권의 경제적 실책이 지적되고 있다. 2020년대 중남미에서는 심화된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 악화와 코로나19 대책 미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빈번해진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 환경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다시 분홍색 물결이 중남미에 찾아든 이유를 "전임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불평등 및 빈곤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불평등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역내 좌파정부는 광업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수입 증대를 도모하거나 신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광물 매장량이 많은 국가에서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으며, 국유화를 비롯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KIEP는 미국 · 중국과의 관계가 일부 재설정될지언정 1차 핑크 타이드 때처럼 급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일부 강화되겠지만, 미국이 여전히 중남미 국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KIEP는 "역내 좌파정부 확산세로 인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여건이 미국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협력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역내 좌파정부 확산세를 발판 삼아 대중남미 협력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중남미에서 도모하는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멕시코** = 멕시코에서 최초의 좌익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종식'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자원민족주의 강화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이전 경제 모델에서 눈에 띄는 탈피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미맥캐협정(USMCA)의 성공적인 협상과 출범을 이끎으로써 개방적인 무역 ·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에너지 산업에서 정부 개입을 강화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 및 전력 산업에서 페냐 니에토(Peña Nieto) 전임 정부의 개혁정책을 되돌리면서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부문에서는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 **브라질** = 3선 대통령이 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 중국 간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친중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기존 중립 · 다자외교 노선으로의 복귀가 전망된다.

브라질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최근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하루 소득 5.5달러 미만의 빈곤 인구가 전체의 약 29.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룰라 정부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빈곤 감축을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확대를 계속할 예정이기에 정부 부채가 GDP의 75%를 차지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룰라 정부는 국영기업과 브라질개발은행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의 정유, 바이오디젤, 광업, 디지털 전환, 태양광 · 풍력 발전 등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 중남미 리튬 트라이앵글 3개국 중 가장 개발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아르헨티나는 좌익 정권이 출현했음에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리튬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포스코그룹과 리튬 및 양극재산업 투자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제성적 평가는 좋지 않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만성적인 외화 부족, 높은 외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규제와 빈곤감축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경기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약 2600억 달러(GDP의 약 41.5%)로 추정되는데, 외환보유고는 외채의 약 17%에 불과하며, 마크리 전 정부는 IMF에서 44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재정지출 축소를 권고하고 있지만, 페르난데스 정부의 지출 축소 및 재원 증대정책은 미미한 상황이다.

● **볼리비아** =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리튬 생산체제 구축을 국가 중기 재정 확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굴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에 따라 ▷리튬 매장 자원 종합 평가 ▷리튬 · 배터리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글로벌 기업의 채굴 · 화학 부문 사업권 입찰 ▷세수 창출 관련 조세제도 구축 ▷채굴 · 건설 · 운송 부문 일자리 13만 개 창출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 리튬 채굴 계획에서 중국 CAT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올해부터 연간 1500t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아르세 대통령은 볼리비아가 리튬 산업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 생산 능력은 크게 부족하면서, 2025년경부터는 볼리비아가 리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속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리튬 산업에 다른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 입찰을 공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영채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리튬 소금호수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5억2000만 달러의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1일 아르헨티나 살타주에서 김광복 아르헨티나 법인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44

후배를 키우는 리더, 선배를 키우는 후배

만약 최근 5년간 한 번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즈음 스카우트 방식을 통한 이직은 일반 회사에서도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신입직원을 거의 안 뽑을 것처럼 경력직 채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 CEO는 '오래전에 많은 경영자들이 대학이 불량품을 양산하여 신입직원을 다시 교육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런 기류가 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능력 있는 중견 사원을 뽑기 위한 창(채용)과 방패(인재유출 방지) 간 싸움도 만만찮다. 경력직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된 스카우트는 물론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도 봇물 터지고 있다.

더불어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스카우트 방식은 지인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데려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지만, 회사와 스카우트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기에 금상첨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정확하게 알고 스카우트해 올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알아 실패 확률이 대폭 낮아진다.

스카우트에는 경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리더로서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팀원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몇 년간 했다가 핵심이지만, 중견 리더라면 특정한 업무에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기본이고 후배 직원의 역량을 어떻게 배양시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팀원 코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여기서 코칭은 감독처럼 벤치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뛰면서 때론 힘든 일을 대신에 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혜를 보태주는 현장형 리더를 말한다.

유능한 팀장은 하루하루 업무를 처리하면서 팀원의 아쉬운 점을 메모한 후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꼼꼼하게 메모해 전해준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쌓아야 하고, 자신은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노하우도 덧붙여 알려줘야 한다.

코칭이 활성화되면 팀워크가 좋아지고 실력 있는 직원들의 이직도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최근 이직 제의를 받은 대리급 직원은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기로 했다. 팀장과 현안을 두고 자주 소통(상상도 못 한 질문을 주고받음)하면서 생각의 폭이 크게 넓어졌음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반면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라도 새로운 일을 하려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기업'으로 형성되던 이직흐름도 옛말이다. 대기업에서 성과보상이 확실한 스타트업으로의 이직도 흔하고, 안정된 자리를 던지고 회사를 차리기도 한다.

또한, 유능한 리더라면 팀원에게 외부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당장의 업무처리에 만족하다 보면 교육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특히 당장 필요한 지식이 아닌 리더십이나 업무 트렌드에 대한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또 리더는 내부적으로 소규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야 한다. 매번 회의마다 특정한 주제와 자료를 안내해 주고 요약하거나 이를 자기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색해 보라는 미션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사업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회사에 다니면서 위기라는 말을 따갑게 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이 최고 위기인 것 같다. 아마 회사 규모를 떠나 예외가 없을 것이다.

변화가 빠르고 기술적 단절(어제의 경험이 오늘에 도움이 안 됨)이 일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젊은 직원들이 쉽게 이직하고 업무에 관한 공부를 등한히 하기도 한다.

위기의 시대, 훌륭한 리더가 유일한 대안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100마리 양의 무리는 양 한 마리가 이끄는 100마리 사자의 무리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핵심은 부하를 전문가로 키우는 능력이 리더한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스스로 보유한 노하우를 잘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 '너를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팀원이 리더의 능력을 뒷받침해주고 더 나아가 리더를 키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채 | W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영진의 풍경

줄타기

걱정과 조바심에 늘 마음이 흔들린다. 외줄을 타는 것처럼 하루살이가 아슬아슬하다. 그러나 외롭지 않다, 고 이를 악문다. 〈사진가〉

Global Market
한국무역신문 제760호
www.weeklytrade.co.kr

베트남, 디지털경제 확대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은 인도 다음으로 디지털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다"면서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39개국 중 25위"라고 소개했다. 디지털경제의 총상품가치(GMV)는 2021년 180억 달러에서 2022년 230억 달러로 28% 증가했다. 2025년에는 31% 늘어난 49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 디지털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경제, 플랫폼 디지털경제, 산업별 디지털경제 3개 부문에서 모두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IT 서비스가 30%의 비중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전자상거래, 하드웨어(HW) 생산이 각각 14.3%와 12.8%로 뒤를 이었다. 이용석 기자

kotra
세계로 가는 창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news.kotra.or.kr

2023년 3월 13일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 푸드' 시대가 온다

환경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각광

캐나다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가치와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친환경 '업사이클 푸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식품 제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하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채소, 과일 등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푸드 업사이클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영양가 높은 식품을 만들 수 있어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캐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제품 선호하는 소비자들**=시장조사기관 퓨쳐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 업사이클 푸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약 530억 달러이며 매년 4.6%의 성장률로 2032년까지 83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통계 전문기관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소비자 중 49%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답했고 39%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업사이클 푸드 같은 식물 기반 음식을 더 섭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새롭게 등장한 업사이클 푸드 기업들**=스틸굿은 캐나다 몬트리올주 소재 회사로 과일 껍질, 주스를 만들고 남은 과일 및 채소 펄프와 소비된 곡식을 업사이클해 다양한 종류의 쿠키, 그래놀라, 곡식 가루를 생산한다. 제품 가격대는 4.25~8.99캐나다달러.

해피플래닛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과 채소를 업사이클해 다양한 맛과 종류의 스무디를 만든다. 제품 가격대는 325ml 기준 2.47~4.49캐나다달러로 저렴한 편이다.

아보라멘은 청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라면 국물을 제조해 업사이클 라면을 생산한다. 2인분 기준 14.99캐나다달러에 판매 중이다. 참고로 현지 1인분 라면 가격은 16~21캐나다달러다.

●**정부의 푸드 업사이클 기업 지원**=캐나다 정부는 농업 및 농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캐나다인 농업 파트너십'을 통해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푸드 업사이클과 같은 산업 부산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도 포함하며 특히 잉여 및 판매되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건조시켜 식물 기반 분말 및 고체 식품 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받은 캐나다 푸드 업사이클 기업 가운데 아웃캐스트푸드가 있다. 아웃캐스트는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과 채소를 업사이클해 단백질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다. 작년 2월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웃캐스트푸드에 약 15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했다. 이 자금은 친환경 식품 생산과 가공, 지역 식품 인프라 구축, 식품 폐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쓰인다.

같은 파트너십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또 다른 기업으로 빅마운틴푸드가 있다. 이 회사는 업사이클된 과일과 채소로 식물 기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두부 등 지속 가능한 대체 단백질 식품을 생산한다. 작년 7월 정부는 이 기업에 14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제품 생산량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 로봇의 생산기술을 보강하는 데 쓰인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21년 8월 비영리 단체인 NPC(Natural Product Canada)와 협력해 양조장에서 나온 곡물 부산품을 토르티야로 업사이클하는 카사보니타에 신제품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1만7820달러를 지원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업사이클 스타트업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들**=캐나다 앨버타주 투자청(IAC)은 작년 6월 한국 최초의 업사이클 푸드 기업 리하베스트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리하베스트는 맥주, 식혜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업사이클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다.

IAC는 리하베스트의 기술과 시설을 앨버타주의 캐나다 대표 맥주 '빅락' 및 다른 수제 맥주사들의 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식품 관련 규제 및 비용구조 조사, 정부 혜택 등 캐나다 진출에 필요한 사전 검토사항들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지 기관들과의 미팅 주선을 약속했다. 릭 크리스치안스 IAC 청장은 "리하베스트의 명확한 사업 모델과 기술력, 앨버타주의 농업 환경이 식음료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IAC의 지원을 약속받은 한국 업사이클 기업은 리하베스트뿐만이 아니다. 도축한 동물의 혈액을 재활용해 아미노산 혈액을 자원화한 아미노랩은 2022년 6월 IAC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앨버타주 투자청장은 "아미노랩의 사업모델이 명확해 앨버타의 경제 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IAC는 이 회사의 앨버타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등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고품질의 1차 제품과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사료, 도축 혈액 등의 제공을 약속했다.

●**우리 기업 시사점**=친환경 유통 채널인 홀푸드마켓의 세일즈 매니저는 "캐나다 매장에서 업사이클 푸드 제품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더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렇듯 캐나다의 업사이클 푸드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

캐나다는 정부 지원 및 기업 파트너십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 있어 K-푸드 및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업사이클 식품을 개발해 진출하기에 좋은 곳이다. 맥주, 식혜, 들기름, 참기름 등 곡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다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한국에서 이 제품들의 부산물을 저가 혹은 무상으로 확보한다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부산물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해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면 유통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속한 물자 지원이 가능해져 제품 판매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무역관

튀르키예 유력 대선후보 3월 6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튀르키예 공화인민당(CHP) 대표의 지지자가 "우리의 대통령, 클르츠다로울루"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튀르키예의 간디'로 불리는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후보에 추대돼 강진 참사로 장기 집권이 불투명해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맞서 오는 5월 대권에 도전한다. 【앙카라=AP/뉴시스】

1~2월 중국 수출입실적 줄어

중국이 올해 1~2월 수출과 수입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이 기간 수출은 5063억 달러(약 658조 원)로 작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이는 〈로이터〉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증감률 예상치(-9.4%)보다는 양호한 실적이다.

1~2월 수입은 3894억 달러(약 506조 원)로 10.2% 감소했다. 작년 11월 -10.6%에서 12월 -7.5%로 다소 회복됐으나 다시 두 자릿수대로 하락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5.5%)보다도 낮았다.

이로써 1~2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116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818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다.

중국 당국은 춘제(春節 · 설) 연휴가 긴 점을 고려해 1~2월을 묶어 1개의 지표로 삼는다.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액은 306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줄었으며, 수입은 전년 같은 달보다 7.5% 감소한 228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1~2월 중국의 수출입실적이 저조한 데는 아직 내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 '제로코로나' 정책 철폐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했다가 1월 22일 춘제를 기점으로 감염이 잦아들었으나 소비가 기대만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동차도 구독…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미국 구독시장

경험 중시하는 MZ세대 관심

지난해 미 워싱턴DC에 있는 6개 레스토랑이 6주간 매주 다른 요리사들이 만든 저녁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저녁 배달 구독 서비스를 내놔 화제를 모았다. 일주일에 하루쯤은 전문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3가지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 구독 프로그램은 식사비만 1인당 360달러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6일 만에 매진됐다. 코로나19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구독경제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가 더 유망한 구독경제= 투자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 UBS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구독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구독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주오라가 발표한 자료에도 비슷한 분석이 보인다. '스탠더드 앤푸어스(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지난 10년 연평균 3.5% 성장률을 보인 반면 구독경제지수(SEI)는 17.5%의 연평균 성장률로 4.6배를 기록했다.

예산 및 자금 관리 앱 로켓머니가 발표한 앱 사용자의 소비패턴 분석에 따르면 1인당 평균 17개의 구독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145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셧다운 기간에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집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밀키트, 영양제, 의복 같은 구독 박스를 중심으로 평균 21개의 구독을 기록했다. 또한 10회 이상 반복 결제하는 파워 구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구독경제의 핵심 '구독 박스'= 구독 박스는 일정 주기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초기 구독 박스는 브랜드 충성도에 기반해 성장했기 때문에 신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판과 할인 행사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직접 쇼핑이 차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과 소셜미디어 보급 확대를 타고 동반 성장했다.

시장조사기관 엑스퍼트마켓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 박스 시장은 2021년 231억8000만 달러가 넘었고 2027년까지 연평균 18.1%의 증가율을 바탕으로 628억9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구독 박스의 주 구매 상품은 '의류'(59.6%)였고 '식음료'(48.2%), '위생용품'(43%), '뷰티 및 메이크업'(24.9%) 제품이 뒤를 이었다.

주요 품목인 의류 구독 박스는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데 소비자가 직접 관심 있는 옷들을 선택해 배송받아 입어 보고 원하는 것만 최종 결제할 수 있는 아마존의 '트라이 비포 유 바이(Try Before You Buy)'가 있다. 또한 100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바탕으로 체형, 개인 취향, 예산에 맞춰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구독 프로그램 스티치픽스, 쇼핑이 귀찮은 남성을 대상으로 대신 옷을 골라 보내주는 트렁크클럽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면도날, 개인위생, 건강 및 피트니스, 식음료, 와인, 교육, 취미, 도서 및 애완동물 관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시장= 구독 박스의 주 소비자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같은 젊은 연령층이다. 얼마 전 숍블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24세가 36.7%로 제일 높은 구매 경험을 보였고 이 중 6.9%는 여러 개의 다른 브랜드나 상품 구입에 구독 박스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신흥 소비권력'이라고도 불리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변화에 민감하다.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소비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 구입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에 집중한 소신 있는 소비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새로운 소비성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 유통 채널인 기업 간(B2B) 거래나 기업-소비자(B2C) 거래보다 더욱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게 했다. 이러다 보니 'B2H'(Business to Human)라는 새로운 유형의 유통채널이 등장했고 구독경제는 B2H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됐다.

B2H 마케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며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와 밀접하게 소통한다. 또한 파워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와 협력해 소비자 감성에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한다.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 자동차 소비시장은 크게 구입, 리스, 렌트로 세분화되는데 리스와 렌트의 틈새에서 자동차 구독 시장이 성장 중이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자동차 구독 시장 규모는 약 31억 달러였고 2022~27년에는 21.1%의 연평균 성장률로 2027년에는 98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월 구독료에는 자동차 사용료와 자동차보험 비용이 포함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쉽고 빠르게 새로운 모델을 타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자동차 구독 시장은 '나를 위한 사치'라는 소비심리를 겨냥하면서 럭셔리 자동차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4월 BMW는 '엑세스 바이 BMW'라는 구독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고 아우디는 그해 9월 말 '아우디 셀렉트'를 출시했다. 볼보는 '케어 바이 볼보'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렉서스와 포르셰 또한 자동차 구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처럼 직접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대리점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구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동차 구독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다.

투자와 상품 정보 분석 기관 인베스트오피디아가 공개한 '2022년 베스트 자동차 구독 회사' 1위에 이름을 올린 허츠는 한달에 최고 2번까지 자동차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구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월 구독료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며 한달에 2000마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연중무휴 서비스도 가능하다. 모든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면책도 보장한다. 선택 가능한 자동차 모델에 따라 월 구독료는 599달러, 999달러, 1399달러 세 가지다.

자동차 관련 구독경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서비스로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1년에 두 번 오일을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1년에 한번 엔진 에어필터와 내부 캐빈 에어필터를 교환해주거나 타이어의 상태를 체크하고 교체해주는 등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편의 기능의 하나로 구독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다. 텔사가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로 가는 한국 구독 박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의 중심인 K-팝, K-뷰티와 K-푸드를 기반으로 한국 제품을 구독 박스와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매달 좋아하는 스타들의 얼굴이 찍힌 티셔츠나 양말 등 굿즈를 받아보는 구독 박스, 미리 제공한 소비자의 피부 정보를 바탕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및 보디 제품의 샘플들을 스킨케어 팁과 함께 받아보는 구독 박스, 좋은 리뷰를 받고 있는 한국의 마스크 팩을 선별해 받아보는 마스크 팩 구독 박스까지 다양하다.

한국 군것질거리의 인기로 K-스낵 구독 박스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아기자기한 한국의 문구류 및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미스터리 서프라이즈 구독 박스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구독박스는 틈새시장으로 한국과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특정 소비자의 연령대,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선택한 품목 또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맞춤형 제품들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나 파워 블로거들과 협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 시사점= 맥킨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구독 박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13%만이 구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는 구독 박스 가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가 이미 구독 박스를 알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며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많음을 뜻한다.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구독 박스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구독 박스는 구독료가 기업의 매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독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독 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제품과 지속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디트로이트 무역관

화마까지 덮친 로힝야족 3월 5일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 바자르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가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가옥 2000채 이상이 불에 타 1만2000여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콕스 바자르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다. 【콕스 바자르(방글라데시)=로이터】

리사이클링, 미 뷰티시장 트렌드 주도한다

뷰티업계, 환경 고려해 적극 실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야생동물 터전 파괴, 쌓여가는 쓰레기 등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간 이런 문제와 큰 연관성을 느끼지 못했던 뷰티업계도 환경적인 영향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화장품 패키징이 쓰레기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버려지는 뷰티제품 패키징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노력이 미국에서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다.

● **세포라의 리사이클링 박스**=미국의 대표 퍼스널 케어 및 뷰티 제품 종합 판매점 세포라는 지난 7월부터 미 전역 35개 매장에 화장품 패키지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박스를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뷰티 리사이클링 기관 팩트콜렉티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중인데 소비자들이 다 쓴 화장품 패키징을 가져오기만 하면 쉽게 리사이클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팩트콜렉티브에 따르면 미 뷰티 및 웰니스 업계는 매년 약 1200억 개의 제품 패키징을 제작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패키징들은 결국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 판매, 사용, 쓰레기 처분, 매립의 반복적인 패턴을 깨서 사용한 빈 병이나 패키징에 제2의 삶을 주는 것이 '팩트콜렉티브×세포라'의 목표다.

팩트콜렉티브의 공동 창립자 미아 데이비스는 뷰티 전문 매체 글로시와의 인터뷰에서 "다 쓴 뷰티제품 패키징을 지역별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 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대부분의 뷰티 용기는 사이즈나 원료 문제 때문에 결국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혹은 소각 쓰레기로 합류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류 시스템은 자동화가 이뤄져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성공적으로 걸러지는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큰 플라스틱병이나 유리병이다.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고 모양도 천차만별인 뷰티제품 패키징은 자동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는 재활용품으로 분류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 팩트콜렉티브처럼 뷰티 패키징 리사이클링에만 초점을 둔 기관들은 이런 재활용품 자동 분류의 실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재활용을 실천하려는 미 소비자들은 이제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등 뷰티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 패키징을 깨끗이 헹구고 말려 세포라나 기타 소규모 뷰티 브랜드 매장에 설치된 리사이클링 박스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리사이클링 박스에 넣을 수 있는 패키징 종류도 생각보다 많다. 주먹보다 작은 크기의 각종 플라스틱병, 튜브, 파우치 용기에서부터 다 쓴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용기, 마스카라 솔과 튜브, 병뚜껑, 아이섀도 팔레트나 콤팩트까지 수집이 가능하다.

● **뷰티 대기업들의 잇단 동참**=세포라 같은 소매점뿐 아니라 뷰티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도 리사이클링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세포라를 비롯해 미 대표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과 다양한 인디 뷰티 브랜드 보유 기업 데씨엠은 팩트콜렉티브와 유사한 성격의 리사이클링 기업 테라사이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패키징 재활용에 나섰다.

테라사이클은 뷰티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리사이클링 파트너이기도 하다. 지난 9월에는 미 대형 소매점 체인 월마트와 다국적 종합 소비재 기업 프록터앤갬블(P&G)이 테라사이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 전역 25개의 월마트 매장에서 헤어케어, 스킨케어, 화장품 패키징 리사이클링 박스를 도입한 바 있다.

매장에 리사이클링 박스를 도입해 화장품 패키징을 재활용하기 시작한 곳은 미국계 메이크업 제품 전문 브랜드 맥이 최초다. 1990년 초반부터 시작돼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맥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은 맥의 대표 화장품인 립스틱을 비롯해 6개 제품 공병을 가져가면 새 립스틱 제품 한 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미 뷰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

미국의 스킨케어 브랜드 오리진스와 키엘은 2009년부터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프랑스계 럭셔리 뷰티 브랜드 록시땅 역시 2014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록시땅은 2025년까지 자사 제품 플라스틱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등 리사이클링 패키징의 수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재활용 물질의 재사용까지 신경 쓰고 있다.

키엘 미국 법인의 마케팅 책임자 다이애나 머로네는 글로시와의 인터뷰에서 "재활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면서 2019년 키엘이 수거한 리사이클링 패키징은 약 100만 개에 달했고 2020년 팬데믹으로 규모가 잠시 주춤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약 70만 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록시땅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마리아나 펠만 역시 "매장 내 리사이클링 개념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 증진과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 시사점**=리사이클링이 미 뷰티 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사후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보다 사전에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뷰티 패키징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리필 판매도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및 매립 처리를 위해 뷰티 패키징 생산단계에서 단순 원료나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

KOTRA 무역관과 인터뷰한 미 비즈니스 컨설팅 업계 종사자 C 매니저는 "요즘 소비자들은 정보에 빠르고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리사이클링 노력이 자칫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주의를 기울이는 듯 마케팅하는 그린워싱은 소비자 반응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패키징 리사이클링 활동에는 수집된 패키징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공개하는 투명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뜻이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아프리카로 귀환 3월 4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펠릭스 우후에 보아니 공항에서 튀니지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주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1월 21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튀니지로 불법 입국하는 이주자들의 배후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튀니지 내 280여 명의 말리, 코트디부아르 출신 이주자들은 본국행 비행기를 타고 귀환했다. 지중해 중부에 위치한 튀니지는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주요 출발지 중 하나다. 【아비장(코트디부아르)=AFP/연합뉴스】

호주 밀 수출, 20% 급감 전망

세계 2위 밀 수출국인 호주의 올해 작황이 건조한 날씨 탓에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밀 수출량도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호주 정부 기관인 농업·자원경제과학청(ABARES)이 7일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BARES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오는 7월 시작되는 2023~2024 회계연도 밀 생산량을 2820만t, 수출량을 2250만t으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기록한 밀 생산량 3920만t, 수출량 2800만t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ABARES는 이번 회계연도 밀 수확량이 늘어난 것은 라니냐 현상으로 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4월 파종을 앞두고 라니냐 현상 소멸로 다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밀 작황이 그리 좋지 않겠으나, 용수 저장량과 토양 내 수분 함유량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평년 수준 정도의 수확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카놀라유 원료인 카놀라의 다음 회계연도 생산량은 540만t으로 35% 감소하고 보리와 수수 생산량도 각각 30%와 2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곡물 생산 총액도 이번 회계연도 540억 호주달러(약 47조700억 원)에서 다음 회계연도 460억 호주달러(약 40조1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축 생산량은 350억 호주달러(약 30조5070억 원)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차이잉원 미국 간다… 미중갈등 심화 · 대만해협 긴장 우려

4월 중남미 순방길에 방미

미중 양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에 이어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4월 미국을 방문,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미 지역을 방문하면서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대만을 국토 일부로 보는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만해협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 총통은 4월 초 중미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도 경유할 예정이며 매카시 하원의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두 사람의 회동도 여기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재단은 〈FT〉에 차이 총통의 연설 초청을 확인했다. 만약 차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 이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차이 총통은 당시 카리브해 4국 순방 중 뉴욕과 덴버 등을 경유했으나 정계 고위 인사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차이 총통의 방미 추진 보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나는 대만이 총통의 어떠한 순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만 총통은 과거 미국을 찾은 바 있고, 자세한 사항은 대만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잇단 질문에 "현재로선 방문 계획이 없고, 계획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방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만 국방부는 차이 총통의 방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이 그에 대응해 도발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3월 7일 입법원(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 간 회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추 부장은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만은 중국의 반복적인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군대를 보내기 위해 어떠한 이유도 대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대만군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또다시 움직인다면 군대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복적인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저 '덤벼'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과 대중국 강경파인 매카시 하원의장간 회동이 미국 본토에서 진행될 경우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진화하기는 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대만에 대한 방어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대응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다.

앞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지난 8월 현직 미국 하원의장으로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사실상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당시 미국과의 대화 채널도 중단하면서 미중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는 대화 모드로 이동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 총통이 미국 본토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미국 정부가 경유 허가 등을 통해 이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미중 간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카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긴장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은 중국의 공세적인 반응을 피하고자 매카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대신 차이 총통이 방미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대만 방문 계획을 밝혔으나, 방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중국 언론에서는 매카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사전에 대만을 포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보도된 바 있다.

워싱턴 · 홍콩=연합뉴스

차이나르네상스 회장 실종 후 중국 기업에 '시진핑 공포'

공산당 기율감찰위 조사 추정 "이번엔 내 차례" 우려 확산

중국 투자은행(IB) 차이나 르네상스(華興資本)의 바오판 회장이 실종된 후 '시진핑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바오 회장이 돌연 자취를 감춘 이후 차이나 르네상스 측이 3월 1일 "바오 회장이 현재 중국 유관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로선 지난달 중국 내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에서 구금 조사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관은 구속영장은 물론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몇 달씩 밀실 조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율감찰위는 지난달 '반부패 장기전의 단호한 승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금융 엘리트론과 배금론, 서방 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오 회장은 차이나 르네상스의 전 사장이자 이 그룹의 홍콩 증권 자회사 회장인 충린(叢林)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상은행 계열사로 충린이 대표였던 ICBC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2017년 차이나 르네상스에 제공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신용 대출이 당시 바오 회장이 보유한 법인 주식으로 실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느냐를 조사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바오 회장이 열정적인 벤처투자가였고,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누구나 바오 회장처럼 갑자기 실종될 수 있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실제 벤처 투자업계에선 투자자는 물론 벤처기업인이 자칫 '흉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마저도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2년여 전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몰아닥친 중국 당국의 된서리가 다시 몰아칠지 걱정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2020년 10월 중국 금융 당국의 규제를 비판한 걸 계기로 빅테크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압박이 이어졌다. 이는 사실상 빅테크의 퇴조를 초래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빅테크 때리기'는 5년 주기의 최대 정치행사인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완화됐다. 중국 당국은 당 대회에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를 통합한 빅테크가 중국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라는 취지를 확인하면서 제재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중국 당국이 언제 표변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바오 회장의 실종을 계기로 시진핑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베이징 당국이 항상 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바오 회장의 실종을 계기로 민간 부문이 훨씬 신중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기업가와 벤처투자자 등 12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든 이후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펴고 있으나 "중국의 친시장 입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벤처 자본가는 "아직 투자하지 않은 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는 중국에서 신생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전자담배 스타트업 스노우플러스 테크의 설립자인 레이 샤오는 최근 중국 내 직판장 400개를 모두 폐쇄하고 인력을 60% 줄였다고 밝혔다. 홍콩의 사모펀드 카이위안 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으로선 빅테크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 의지가 영구적으로 후퇴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폐허가 된 학교 3월 6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시의 한 학교가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돼 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뱐스크로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 바흐무트를 8개월 넘게 집중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AFP/연합뉴스】

‘반도체 강국’ 중국몽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나

ASML보다 기술력 20년 뒤져
서방규제로 기술 획득 어려움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 18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외국 협력업체들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기술적 장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진단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고, 이러한 조치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하도록 끌어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생산장비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400억 달러(약 181조 원)를 책정했고, 이를 통해 중국 유일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등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로이터〉는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자금 지원만으로는 수세대 앞서있는 서방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반도체 장비업은 1대에 최고 1억 달러(약 1297억 원)에 이르는 장비를 판매한 뒤 설치 · 최적화 · 유지 · 보수 등에 걸쳐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측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SMEE를 비롯한 중국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들에 장비를 판매하는 만큼,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제조사 고객을 상대하면서 첨단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기술적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혁신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밑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번스틴 리서치에서 중국 반도체 부문을 담당하는 마크 리는 “그런 만큼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든 대량 생산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서 “더 많은 기술과 요령을 배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의 세계화와 함께 공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관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SMEE 전직 엔지니어에 따르면 2002년 SMEE 설립 시에는 회사 최고경영진도 노광장비 관련 경험이 없었지만, 직원들이 중고 기계를 사서 연구하고 공개된 특허나 논문 등을 공부하는 식으로 첫 장비를 만들어냈다. 이후 2018년께 실리콘 웨이퍼에 90나노(nm · 10억분의 1m) 크기의 회로 패턴을 프린트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3나노 수준인 ASML에 비하면 20년은 뒤처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규제로 선진 장비를 수입하기 어려워지면서 그 이후로는 주요한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직 엔지니어는 “우리가 장비를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점검 · 유지하는지 모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의 한 엔지니어는 미국 제재에 대해 “제재가 발표되자 모든 미국기업이 따랐다”면서 “장비를 사면 고객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제재 때문에 그마저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자연과학 분야 최고 학술기구이자 자문기구인 중국과학원의 부원장인 리수선 원사와 뤄쥔웨이 연구원은 최근 중국과학원 관련 매체의 위챗 계정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설사 중국이 해외 기술을 모방해 첨단 반도체를 설계 · 제조하더라도 국제 공급망에 진입하기 어렵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산화하더라도 국내 수요를 맞추거나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정도일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반도체 기초 연구를 대폭 강화해 차세대 트랜지스터 소재 · 부품 등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특허를 확보하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망의 ‘목구멍’인 칩 제조 분야에 관문을 설치하고 반격 수단을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카펫 짜는 소녀들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3월 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전통 카펫 공장에서 아프간 소녀들이 카펫을 짜고 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권력을 다시 잡은 후, 여성들은 기본권 중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 1975년 유엔은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카불=AP/뉴시스】

“IC대학 설립하자”… 중 양회서 쏟아진 반도체 생존법

3월 4일 개막한 중국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승부처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 · 자강을 이루기 위한 제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가속하는 데 맞서 반도체 분야의 자체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모색이 연중 최대 정치행사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경보〉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펑싱야 광저우자동차(GAC) 회장은 전날 열린 전인대 광둥성 대표단의 정부 업무보고 심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산 반도체 사용률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펑 회장은 또 회사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망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외부의 봉쇄에 직면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하고 테스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건의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인 류중판 중국과학원 원사는 집적회로(IC) 대학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이미 2003년 IC 인재 양성 기지 건설을 시작해 작년 5월 기준 29개 국가 IC 인재 양성 기지를 두고 있는데, 그것들과 차별화한 혁신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 인프라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류 원사는 “중국 IC 부문의 기술 수준은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선두 주자를 추월하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 대학 건립은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혁신적이면서 복수 분야를 통섭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낮은 수준의 반복적인 건립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회 대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26명 포함됐다고 〈텅쉰망〉이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화홍반도체의 장쑤신 회장과 AI반도체 제조업체 캠브리콘의 천톈스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중국, 중앙과기위 신설… 기술패권 다툼 경쟁력 강화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을 겨냥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앙과기위)를 신설해 중앙의 통제력 강화에 나선다. 3월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국무원(내각) 개편안에 중앙과기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국무위원)은 이날 오후 국무원 기구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과학기술부 개편과 관련해 “당과 국가기구를 개혁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기위를 신설할 것”이라며 ”중앙과기위의 사무기구 업무는 개편된 과학기술부가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 혁신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면서 ”국제 기술전쟁과 외부 압력 등 심각한 형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도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학기술 자립 · 자강과 핵심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주문과 일맥상통하다.

중앙과기위의 전신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98년 중국과학기술부로 개명됐고, 2018년에 실시된 기구개편에서 기존 과학기술부, 국가 외국전문가국과 통폐합돼 과학기술부가 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제정은 최고지도부가 직접 맡고, 정부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는 연구와 관련한 본연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과학기술부 개편과 관련해 ”신형 거국체제(국가자원 총동원)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의 결합, 전략 기획, 체계 개혁, 자원 총괄 등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데스크의 창

미국도 '음식이 약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9월, 53년 만에 처음으로 식습관 개선, 식량 접근성 향상, 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 확대를 위해 '영양 및 건강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 섭취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미 건강식품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미 건강식품 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만율과 식이 관련 질병 보유율, 식량 접근성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등 여러 건강 및 영양 관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은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비만율(73.1%)이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1.9%p 높아져 15세 이상 미국인 75%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체 인구의 40%가 고혈압,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약 1700만 명의 미국인은 식료품점에서 멀리 떨어진 저소득 지역에서 살고 있어 식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 유제품 같은 건강식품의 경우 냉장 보관이 필수인데, 소규모 마트 판매가 쉽지 않아 소외지역에서 이들 식품을 접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식량 불안정 자체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습관 개선, 접근성 향상, 건강식품 산업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할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식습관 개선, 식량 접근성 확대, 식이 질병 감소를 목표로 약 80억 달러 규모의 민간 및 공공 지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획은 ▷소외지역 식료품점 건설, 대중교통 확장, 영양보충 프로그램 지원금 및 수혜자격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및 영양 분야 지원 확대, 식이 관련 질병 보유 환자에게 맞춤화된 건강 식단 및 채소, 과일 등 건강식품 섭취량 처방 ▷'건강식품' 라벨 기준 강화 및 식품 포장 전면 라벨링 체계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이해도 강화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지원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5가지 주요 전략과 세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최대의 식료품 체인 앨버스톤스는 식물 기반, 유기농 관련 자체 브랜드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올해 안에 100개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6개의 건강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식료품점 메이저는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를 대상으로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등과 같은 신선 농산물 구매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약국 전문 체인 월그린스는 오는 2030년까지 매장 내 신선식품 라인을 20%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의 건강식품 확대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식이 약(Food as Medicine)'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영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약으로서 식품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딜로이트가 2000명의 식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올바른 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고 식이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75%는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 50%는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음식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딜로이트의 다니엘 에드살 대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건강과 웰빙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해 건강식품 중에서도 신선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작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일본 다음으로 비만율이 낮아 미국에서 '한국 음식은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 파인레스토랑에는 김치와 고추장을 활용한 메뉴가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식료품점에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과 식품업계의 건강식품 확장 노력에 따라 신선식품, 기능성 식품, BFY(Better-For-You) 식품, 식물 기반 식품 등을 포함한 미 건강식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뉴스매체 〈비즈니스와이어〉는 2021~2026년 미국 건강 및 웰빙식품 시장이 연평균 11.9%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363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시카고 무역관은 "미국 건강식품 산업 확대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시장조사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마케팅 전략, AI가 짠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열풍이 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엔진에 이어 기업용 소프트웨어에도 '챗GPT' 기술을 도입, 시장 공략에 착수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S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판매·마케팅·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인 '다이내믹스 365 코파일럿' 시범서비스를 출시했다. 다이내믹스 365 코파일럿의 AI는 고객 문의에 대한 채팅·이메일 답변을 작성하고 마케터가 목표로 삼을 고객 카테고리를 제안하며 이커머스 판매용 제품 목록 작성을 도울 수 있다. 이미 기업 고객 수백 곳이 이 서비스를 시험해보고 있다.

이번 출시는 MS가 생성형 AI와 챗봇을 검색엔진 빙과 기업용 회의 소프트웨어 '팀스'에 탑재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1월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의 모든 제품 라인업을 오픈AI의 AI 도구를 활용해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델라 CEO는 AI를 활용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등 전에는 분리돼있던 프로그램 간 단절을 허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 대신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AI 부조종사(코파일럿)'가 있어야 한다고 나델라 CEO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빙 챗봇과 같이 다이내믹스 365 코파일럿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를 활용한 빙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오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유도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윤리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여러 월가 은행들이 챗GPT 사용을 금지했고, 다른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기밀 정보를 AI 챗봇과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들도 AI 챗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시장조사업계 피치북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은 챗GPT나 다른 언어 인식 앱 등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총 78건, 13억 달러(약 1조6900억 원)를 투자했다. 특히 작년 4분기의 벤처캐피털 투자 중 가장 큰 거래 중 두 건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이뤄졌다. 미 텍사스 소재 마케팅·홍보 콘텐츠 생성 플랫폼인 재스퍼는 작년 10월에 1억2500만 달러(약 16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해 화제를 일으킨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도 1억100만 달러(약 1313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INQUIRY 거래알선 코너

한국무역신문은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알선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플랫폼 마케팅실 CBT마케팅센터**에서 제공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거래알선 사이트(**kr.tradeKorea.com**)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월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국 가 홍콩 Ora 社
품 목 Children food & beverage

국 가 남아프리카 CIP 社
품 목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Polymeric Soy Sauce

국 가 미국 Bla 社
품 목 Butyl Rubber (Cas No.900-85-9)

한국무역협회-하나은행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과 하나은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계약 및 국내업체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 02-6000-4420

서비스 소개

- 우대 대상거래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업체간 외환결제에 한함
- 이용절차

①tradeKorea.com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②신청서 작성 → ③신청결과에서 현재 상황 확인 → ④확인서 발급 확인 시 출력 후 하나은행 방문

우대내용 서비스 문의 : 하나은행 1544-3000, 3500

구분	통상 수수료율	우대 기준율
당발송금 수수료	송금금액구간 별 5,000원~25,000원	건당 50%~80% 할인
타발송금 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80% 할인
신용장통지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50%~80% 할인
매입/추심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30~50% 할인
신용장발행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0.8~1.4%	건당 0.4%P 감면
신용장인수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1.4~2.0%	건당 0.8%P 감면

※ 기업의 당행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요율과 우대율이 상이할 수 있음.

전세계 무역인의 온라인 원스톱 거래 네트워크
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수출 인문학

지구 **60**바퀴를 돌며 발로 뛴
글로벌 비즈니스 비망록

저자 정병도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저자는 1999년 인조피혁 및 바닥재 제조 수출회사를 창업한 후 경쟁기업들이 주목하지 않던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상담과 협상에서 승리한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이다.

지구 60바퀴를 돌고

저자의 항공 마일리지는 150만 마일이 넘는다. 비행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60바퀴 넘게 돈 셈이다.
그는 그 많은 해외출장에서 온몸으로 부딪치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남김없이 담았다.

무역에 인문학을 담다

저자는 이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해외 출장과 마케팅 경험, 그리고 인문학적 사유를 이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툴'로 분석하고 해석해 이 책에 풀어냈다.

"온몸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참 무역인**의 삶과 체험!
글로벌 비즈니스맨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필독서!**"

수출 인문학
– 지구 60바퀴를 돌며 발로 뛴 글로벌 비즈니스 비망록

저자 : 정 병 도
출판 : 필디앤씨
가격 : 15,000원
문의 : 02-6000-3124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예고

'빅브라더 국가'로 가나

중국이 각종 방대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집중화한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명의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에 국가데이터국(이하 데이터국) 신설안을 포함했다.

국무원은 3월 7일 공개한 이 건의안에서 데이터국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 및 추진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 · 개발 · 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 ·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이 기구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국이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WSJ〉는 신설 데이터국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 · 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했다. 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 · 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책무 등이 신설될 총국의 업무로 재조정된다. 총국이 설립되면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해온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국무원 건의안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첨병 역할을 하도록 과학기술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산(産)·학(學)·연(研) 결합', 과학기술 혁신 관련 새 시스템 건설 구획, 과학기술 감독 평가 시스템 구축, 국제과학기구 협력, 과학인재 대오 건설 등을 과학기술부가 맡게 된다.

이런 기구개편 방안은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회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베이징=연합뉴스

홀리 축제 즐기는 힌두여인들 3월 6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힌두교 공동체의 여성들이 '홀리 축제'를 맞아 얼굴에 색가루를 칠한 채 카메라를 향하고 있다. 전통 봄맞이 축제인 홀리 축제는 두세라, 디왈리와 함께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힌다. 【카라치=AP/뉴시스】

인도네시아 작년 경제성장률 5.3%… 9년 만에 최고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는 "인도네시아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로 3.7%였던 전년보다 30%p 이상 증가해 2013년의 5.56%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작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지출 확대, 자원산업 투자 증가, 정부 정책을 통한 기업 투자 제고, 수출증가에 기인한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 교통,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율이 4.93%를 기록, 팬데믹 이전 수준인 5.04%에 근접하면서 전체 GDP 성장률에 2.61% 기여했다. 또한 석탄, 니켈, 팜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내외 투자 증가와 규제 개혁, 대규모 인프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정책으로 기업 지출도 3.87% 성장하는 등 GDP 성장에 기여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순수출은 2022년 전체 GDP 성장에 0.81% 기여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16.28% 확대된 가운데 석탄, 금속,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 러-우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해 역대 최대인 544억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낙관해 5~6%의 GDP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팜유 가격 하락, 세계 광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석 기자

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281

수출목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3년 수출목표를 3940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이는 2022년 실적보다 6%인 22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장관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의 글로벌 무역환경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잠재시장을 찾고 상당한 경쟁 우위에 있는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 관계자는 베트남 수출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이 전체의 70%가 넘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출시장과 제품,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비공식적인 국경 간 무역을 공식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의 경제는 수출만으로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국내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유통을 강화해 국내소비를 장려하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최대 연휴 기간인 설이 끝나고 기업에서 작업 개시는 99.2%, 직원 복귀는 97.8%로 상승했다. 그러나 섬유 · 의류 업종은 신규 주문 부족으로 생산을 재개한 기업이 67.7%에 불과했고, 근로자의 69%만이 업무에 복귀했다. 특히 의류, 신발, 목재 가공과 같은 분야에서 가동률이 낮았다.

HSBC 은행은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자부문의 부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신규 전자제품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공산품보다 가전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및 유럽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1월 휴대전화 수출액은 4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했다. 수출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적어도 2분기 말까지는 수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 미국의 경기침체에 이어 EU가 뒤를 이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대폰 및 부품 제조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며 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는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 17%를 차지하며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2022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23.92% 급증한 50만8547대다. 부품 부족으로 인한 2022년 6월 부진 이후 매월 3만~3만6000대가 판매되며 나머지 달의 회복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승용차 판매만 48% 증가한 31만6941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많은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23년 초 가격을 인하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판매 대리점에서는 등록비를 100% 지급하고 추가 액세서리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특혜를 제공하여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다.

호치민 시내 많은 현대차 판매 대리점은 모델에 따라 2000만~1억300만 동(855~4400달러)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재고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연초의 소비 부진으로 딜러들이 재고를 줄이고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수입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은행은 2022년 신용 성장으로 115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보며 20개 이상의 은행이 수익 면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7대 은행은 각각 20조 동 이상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40% 이상 이익률이 증가한 은행도 6개가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서 순이자이윤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베트남은 2023년 커피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업자들은 커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가격 하락은 세계 경제의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베트남산 커피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가격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수익증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위험 관리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2022년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약품, 특히 항생제 제품과 질병 예방 및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제약 기업의 성공에 기여했다.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향후에도 연평균 6.72%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과 내수 중에서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수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내수 소비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HSBC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무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에는 여전히 회복력이 있으며 관광이 2023년에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이후 국제항공노선의 개통에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노선이 추가 개설을 예고하고 있으며 외국인 무비자 입국의 경우 체류 기간을 15일간에서 30일간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내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아직도 식품 및 외식업을 포함한 필수 소비재만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어려운 시장환경에서도 건강을 테마로 하는 상품의 수요는 있으며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가성비 높은 상품이 경쟁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

알립니다

●생활화학제품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모집

한국수산무역협회는 국내 낚시용품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3년 유럽 국제낚시박람회(EFTTEX)'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에는 임차비 및 장치비 전액과 비품 임차비, 운송통관비, 항공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B2B 낚시용품 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헝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6일까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담당자(02-6300-8900)에게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 전화 : 02-6300-8702
- 이메일 : kfta@kfta.net
- 홈페이지 : www.kfta.net

●SW · ICT 글로벌 현지화 · 마케팅 진출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현지화 · 마케팅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서는 현지 수출시장에 맞는 현지 제품화 전략 수립, 현지화, 품질검증 및 수출마케팅 등을 총 4억7600만 원 예산으로 최대 7개 기업(기업당 68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3일 15시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시스템(smart.nipa.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글로벌협력사업팀
- 전화 : 043-931-5572
- 이메일 : mkjoo@nipa.kr
- 홈페이지 : www.nipa.kr

●2023년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4차산업 신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해외 현지 시범사업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국내외 SW신산업분야(5G, IoT, 블록체인, AI, 핀테크 등) 시스템/서비스 구축 · 운영 실적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SW ·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총 4억5000만 원으로 최대 3개 과제(과제당 약 1억5000만 원)를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3일 15시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시스템(smart.nipa.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글로벌협력사업팀
- 전화 : 043-931-5572
- 이메일 : mkjoo@nipa.kr
- 홈페이지 : www.nipa.kr

●2023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한국관 참가모집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수출 증진을 위해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전자 및 IT제품 전시회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23'에 한국 로봇공동관으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에는 부스임차료 절반과 물류비 일부, 장치비, 통역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독일 베를린 엑스포 센터 시티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1일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 신청서를 교부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전화 : 053-210-9614
- 이메일 : pje@kiria.org
- 홈페이지 : www.kiria.org

●물기업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참가모집

한국환경공단은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 수요처가 확보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현지 실증화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5%, 학계 및 연구기관(중소중견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40%, 대기업 30%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 신청서를 교부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전화 : 053-601-6113
- 이메일 : watercluster@keco.or.kr
- 홈페이지 : www.keco.or.kr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로봇기업 참가모집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로봇 및 SI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산업특성을 고려해 유망 로봇 품목의 현지 도입을 지원하고 이를 트랙레코드(Track Record)화해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의 개량 및 현지 수요처 설치 · 운영 비용 등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하고 기존에 발굴한 해외 수요처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오는 3월 21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사업본부 글로벌혁신팀
- 전화 : 053-210-9614
- 이메일 : pje@kiria.org
- 홈페이지 : www.kiria.org

●2023년 의료기기 해외시장진입 지원사업 참가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성이 입증된 국산 의료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기기업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입을 도모하고자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지원사업'을 통해 후속 성과와 우수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획득, 국제 임상, 현지 시장 분석, 전문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 또는 그 외 혁신성이 입증된 국산 의료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기기업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상담 이력이 있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참가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혁신팀
- 전화 : 043-713-8858
- 이메일 : tyhawk@khidi.or.kr
- 홈페이지 : www.khidi.or.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혁신팀 시장진입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처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 융복합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lobalization pROgram for World's Top High-tech startup)' 사업을 시행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 요건은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사업에서는 성장자금,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1일 16시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 전화 : 043-931-5564
- 이메일 : hunni@nipa.kr
- 홈페이지 : www.nipa.kr

●[서울] 바르셀로나 진출 PoC 지원사업 참가모집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 내 우수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스페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물류 · 통관비, 마케팅 · 홍보 등 해외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스페인 시장 진출 준비 중인 서울 소재 기업으로서 PoC 가능한 기술 · 솔루션 보유 스타트업이어야 하며, 지재권 확보나 물류비, 여비, 마케팅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시장조사비용 등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요처는 스페인 카탈루냐 광장의 호텔 퓰리처 바르셀로나와 호텔 레지나로 AI 예약관리 시스템, 테라스 활용 태양광 기술, 로비 보안, 자원 절약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2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마쳐야 하며, 파일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정책팀
- 전화 : 02-2115-2021
- 이메일 : vanmin77@sba.seoul.kr
- 홈페이지 : www.startup-plus.kr

●[충북] 2023년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KOTRA충북지원단은 충청북도의 지역 내 농식품 수출금액 6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2023 충북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내 농축산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 희망 내수기업 또는 수출중단기업을 대상으로 KOTRA 동남아 및 대양주 권역의 해외 무역관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별 시장조사보고서와 수출기업화 전문위원들과의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며, 통관이나 인증 등 시장진입 걸림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지 유통 벤더사를 통해 수출상담과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추진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7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KOTRA충북지원단
- 전화 : 043-218-7348
- 홈페이지 : www.cbgms.chungbuk.go.kr

●[충남] 2023년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사업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디자인개발 수행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개발과 디자인을 공급하고 외국어 카탈로그 ·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을 기업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공급단가의 70%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2일까지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파일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고 유선 연락이 필요하다.

-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전화 : 041-539-4535
- 이메일 : cepa4535@naver.com
- 홈페이지 : cntrade.chungnam.go.kr

●[대구] 중국 우수 소비재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대구광역시 내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에는 화상상담, 시장조사, 통역, 바이어 섭외, 샘플 발송 등을 지원한다. 무역사절단은 오는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행하며, 5일부터 9일까지는 난징, 12일부터 16일까지는 톈진, 26일부터 30일까지는 항저우에서 온라인 화상상담을 통해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만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7일까지 중진공(www.kosmes.or.kr)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을 마친 뒤 주요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 문의 : 중진공 대구지역본부
- 전화 : 053-659-2535
- 팩스 : 053-585-2570
- 이메일 : hj3581@kosmes.or.kr
-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한국무역신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 지자체, 기업들의 행사, 이벤트, 모집 등의 공고를 접수합니다.
■ Tel : 02-6000-3124 Fax : 02-6000-3122
■ E-mail : wtrade07@gmail.com

한국무역신문 Korea Trade News www.weeklytrade.co.kr
발행인·대표이사 : 김석경 편집인 : 김보근
인쇄인 : 이병동 편집디자인 : 조철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층 427-2호)
구독 : 02-6000-3123 광고 : 02-6000-3116
대표전화 : 02-6000-3119 팩 스 : 0303-3447-3119
E메일 : wtrade07@gmail.com 정가 2,500원 정기구독료 : 1년 100,000원
등록일자 : 2007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 다07698

코엑스가 제안하는
전문 전시 플래너를 만나세요!

기업 맞춤형 전시 기획 서비스, coex BUSINESS

business.coex.co.kr

One-stop Solution

전시기획부터 운영까지 One-stop 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Coex Business가 시작됩니다.

비즈매칭 서비스
바이어와 셀러, 전시회 참가 니즈를 파악하여
최적의 비즈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시 기획 및 컨설팅
업계 및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각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홍보 프로모션
코엑스 XPACE,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전시운영 및 서비스 제공
전시회 운영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부스 시공 서비스
전시회 참가 부스 시공을 위한
부스 디자인과 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ex BUSINESS 로 바로가기